

<1장> 지문 고전

1. 향가

(가)

향가는 신라시대에 생겨나 고려 때까지 이어 불려진 노래로 현재 남아 전하는 것은 모두 25수인데, 이 중 14수는 <삼국유사>에 전하고 11수는 <균여전>에 속한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14수는 형식과 내용과 지은이가 다양한 데 비해 <균여전>에 전하는 11수는 균여대사 한 사람이 지었다. 그는 불교적인 노래만을 주제로 하였으며 11수 각 노래가 열 줄씩 지어졌다.

향가의 명칭은 '우리 노래'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노래를 가리켜 '사뇌가'라고도 적고 있다. 즉 새내(신라)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뇌가의 명칭 뜻은 '신라의 노래'이다. 반면 사뇌가라는 명칭은 열 줄짜리 향가 작품과 관련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가 중에서도 열 줄짜리의 향가만을 사뇌가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남아 전하는 25수의 작품들은 향찰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기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향찰이란 우리 문자가 없던 시기에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방식이었는데 한자의 음과 훈을 섞어서 표기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전하는 작품들이 전부 향찰로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향찰로 표기되어야만 향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향가의 작자 계층과 내용은 모두 다양하다. 불교 승려, 견우 노옹, 상층 정치인, 불교적 믿음이 깊은 신도, 백제의 왕족 등이 향가를 지었다. 내용 면에서는 ㉠사람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서정적 노래, ㉡현실을 넘어 극락 세계에 가거나 대상을 만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낸 노래, 천상적 승고와 지상적 번뇌를 아우르면서 인간적 승고함을 드러내고 ㉢대상을 예찬하는 노래, ㉣내세의 공덕을 닦고자 하는 노동요 등이 알려져 있다.

향가의 형태는 네 줄, 여덟 줄, 열 줄이 있는데, 기본 네 줄에서 네 줄을 더한 2단 구성이 여덟 줄, 여덟 줄에서 다시 새로운 구성인 두 줄을 추가한 것이 열 줄, 즉 10구체 향가이다. 특히 10구체 향가는 추가된 두 줄에서 감탄사를 통해 시상의 정서적 고양과 전환을 피하는데, 이 첨구들은 단순한 두 줄이 아닌 그 이상이다. 특히 4구체 향가, 8구체 향가가 10구체 향가에 대체되어 소멸되지 않고 공존하면서 창작되었다는 점은 특이점이다.

한편 정서의 「정과정」을 향가의 잔존형태로 본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세기에 이르러 향가는 그 잔영을 남기면서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랑의 몰락, 불교가 귀족 종교가 되었던 사회적 상황, 노래보다는 문자 행위로서의 한문학 등이 중시된 점들이 영향으로 적용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나)

왔도다. 왔도다.
인생은 서러워라.
서러워라 우리들은,
공덕(功德) 닦으러 왔네.

- 미상, 「풍요(노동요)」 -

(다)

생사(生死)의 길은
이에 이사매 저히고,
나는 가느다 말스도
몸다 니르고 가느덧고.
어느 그슬 이른 부르매
이에 더에 뿌러덜 닙다이
흐든 가지에 나고
가는 곧 모든드.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맞보올 나
도(道) 닷가 기드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 -

(라)

들하 이데
西方(서방)식장 가사리고
無量壽佛前(무량수불전)에
넌곰다가 숲고샤셔
다담 기프산 尊(존)어히 올워리
두 손 모도호술바
願往生(원왕생) 願往生(원왕생)
그릴 사름 잇다 숲고샤셔
아으 이몸 기터 두고
四十八大願(사십팔대원) 일고살까

- 광덕, 「원왕생가」 -

(가)

주술 향가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와 소망이 드러나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래를 지었다. 즉 노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가치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술향가의 공리적 가치, 즉 노래가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주술 향가 자체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다.

노래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리적인 기능을 지녔다는 것은 일반 서정시의 창작이나 가창발상과 다른 점을 지닌다. 고려속요 같은 것도 노래로서 향유되지만, 그것들처럼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예술적 모습을 지향하는 노래 차원이 아니라, 주술향가의 노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그 효과를 발휘한다. 때문에 단순히 대중이 향유한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노래가 향유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을 때,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관계 맺음은 실천적인 관계맺음이 된다. 이는 주체-객체의 이분화에 따른 주체 중심의 일방적인 관계일 수 없다. 결국 노래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 및 문제를 담기 위해 표현했던 노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실체로서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나)

식불 불기 드래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 보곤
가랴리 내히어라.
돌흔 내해엇고
돌흔 뉘해언고
분덕 내해다마르
아사늘 엇디흐릿고

- 처용가 -

(다)

선화공주님은(善花公主主隱)
남몰래 사귀어 두고(他密只嫁良置古)
서동방을(薰童房乙)
밤에 뵈 안고 가다(夜矣 兜[卯乙]抱遺去如)

- 서동요 -

2. 고려가요, 경기체가

(가)

경기체가는 13세기 초에 <한림별곡>을 시작으로 출현하여 조선시대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었던 시가양식이다. 경기체가라는 명칭은 이 노래에 “경괴 엇더하니잇고” 혹은 “경기하여”라는 구절이 되풀이되는 것을 두고 이를 줄여서 붙인 것이며 한 작품 안에서는 전대절과 후소절의 구성을 지닌다. 16세기에 이황이 쓴 글에 <한림별곡>에 대한 비판의 말이 나오고, 조선조 초기에 <상대별곡>, <오륜가>, <독락팔곡> 등이 경기체가의 형식으로 지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창작되지는 않고 선비들이 그 노래를 불러 즐기는 정도로 명맥을 유지했다. 물론 이 장르는 당시 시가의 주류는 아니었지만 19세기까지 유지되었기에 그 존속 기간이 무척 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긴 존속 기간임에도 창작이 드물었던 것은 경기체가 가 매우 까다로운 형식제약과 특이한 관습을 지녔던 데에 기인한다. 경기체가는 한자 표기로 된 사물의 나열에 후렴구를 덧붙이는 정도의 융통성 없는 형식성에 한정됨으로써 정서적 기미를 완전히 표현하는 데에는 다소 부적절하였고, 그 문학적 생명력을 잃게 되어 간신히 19세기까지 그 명맥을 잇는 데에만 그쳤다.

이렇듯, 경기체가가 보여주는 완강한 형식 제약 속에서의 사물, 사실의 나열 및 감탄사로 집약하는 구조는 그 성격이 보통의 서정시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서정시가 주로 특정 상황 속에서의 체험, 생각, 느낌, 소망을 일련의 유기적 형상으로 드러내는 데에 반하여 경기체가는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행위, 관념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종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체가는 작품 외적 세계의 사실들을 단지 작품 안에 옮겨놓아 이루어진 것에만 불과할까? 경기체가는 단순히 사물들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아우르는 감탄으로 나아간다. 경기체가에 있어서 사물, 사실의 나열, 집약은 외부적 사실의 단순한 전달보다는 작가의 주관성에 의해 선택되고 재구성된 세계로서 드높은 조화의 경관으로 제시되어 그 담당층의 삶과 지향하는 가치를 감격적으로 드높이는 것이다.

경기체가의 내용은 선비들이 학식과 체험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글, 경치, 기상 등을 제재로 삼았다. 즉,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신흥사대부의 호탕한 기상과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경기체가는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기도 하고 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조 초기에는 사대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으므로 이 양식의 창작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나)

원순문(元淳文) 인노시(仁老詩) 공로스록(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단한림(陳翰林) 쌍운주필(雙韻走筆)
통기디척(沖基對策) 광균경의(光鈞經義) 량경시부(良鏡詩賦)
위 시당(試場)스 경(景) 괴 엇더하니잇고
금혹스(琴學士)의 옥순문생(玉笋門生)* 금혹스의 옥순문생

위 날조차 몇부니잇고 [제1장]

당한서(唐漢書) 장로즈(莊老子) 한류문집(韓柳文集)
니두집(李杜集) 난디집(蘭臺集) 백락천집(白樂天集)
모시상서(毛詩尙書) 주역춘추(周易春秋) 주덕례기(周戴禮記)
위 주(註)초쳐 내 외웃* 경 기 엇더흐니잇고
대평광기(太平廣記)* 스빅여권(四百餘卷) 대평광기 스빅여권
위 력람(歷覽)*스 경 기 엇더흐니잇고 [제2장]

- 한림의 유생들, 「한림별곡」 -

- * 옥순문상 : 옥처럼 빼어난 문하생.
- * 외웃 : 외우는.
- * 대평광기 : 중국 송나라 때 설화와 민담을 채록하여 편찬한 책.
- * 력람 : 두루 읽음.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靑山(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렁공 더렁공 햐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보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짐스대에 올라셔 奚喫(히굼)을 혀거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빙 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툃와 잡스와니 내 엇디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靑山別곡」(고려 속요) -
* 가던 새 : 갈던 사래(밭고랑)
* 잉무든 장글란 : 이끼 묻은 쟁기

(가)

문학작품의 체험의 본질이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면에 비추어 볼 때 고려 속요는 말 그대로 다채로운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 비록 전해지는 작품의 수효가 많지는 않지만, 이별의 서러움을 노래로 삭이는가 하면, 신념의 경지로까지 승화된 사랑의 모습을 내보이기도 하고, 고독에 못지않은 성취의 소망도 표출하는 다양성이 나타난다.

고려 속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현전하는 여러 작품 중 상당수가 남녀 간의 사랑에서 오는 체험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 노래가 여성화자의 사랑노래로서, 사랑의 기쁨보다는 사랑의 좌절에서 오는 아픔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현전하는 고려 속요가 궁중악으로서 연행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일단 작품의 표면에 나타난 갈등이 이성과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나)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太平盛代)
늘러는 엇디살라하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올세라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太平盛代)
설은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듯 도셔 오셔셔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太平盛代).

- 가시리 -

(다)

즈믄 히를 아즐가 즘흔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츄리잇가 나는
위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빈내여 아즐가 빈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럽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널빅예 아즐가, 널빅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느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서경별곡(西京別曲) -

3. 시조

(가)

시조는 고려 후기에 창안된, 한국문학의 전통 서사양식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창작되고 불려온 갈래로, 특히 조선조 오백 년 동안 매우 활발하게 향유되었다.

시조의 성격은 그 단일한 정형구조를 통해 잘 드러난다. 시조는 초·중·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은 4음보로 되어 있다. 즉 소리마디가 네 번 결합해 한 행을 만들고 그것이 세 번 중첩되어 한 수를 이루는 것이다. 이때 종장의 첫 음보는 3자로 만드는 것이 엄격히 고수된다. 초장과 중장이 비교적 규칙적인 율격을 보이면서도 시적 개방성을 보여주는 데 반해, 종장의 첫 음보는 이러한 연속성을 차단해 시적 긴장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뒤 과음보가 이어지고, 그 이후 다시 원래의 평음보 흐름으로 이완되며 한 수가 마무리된다. 또한 종장의 첫 음보에 감탄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많이 위치하고, 종장에서 의지형 또는 명령형 문장 등으로 끝맺는 것은 대상에 대한 시적 주체의 정서적 태도가 시의 형식적 안정성과 어우러져 함께 고조되고 이완되는 것을 보여준다.

시조의 주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한다. 15세기 전 반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격변의 시기였다. 이러한 혼란상을 배경으로 이 시기의 시조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대별된다. 몰락한 고려 왕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라면 조선 왕조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조선 왕조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시조 역시 이념 지향적 성격이 짙어지게 되었다. ㉠유교적 이념을 표방하며 백성에게 교훈을 주거나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 시조가 다수 창작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자연친화적 시조는 현실에서의 좌절을 자연에서 해소하고자 했던 후대의 은일의 시조와는 대조적으로, 한가롭고 넉넉한 전원풍경을 드러낸다는 점이 주목된다.

16세기 이후부터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사회가 혼란해지자 시조의 창작 계층과 주제는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계층이 흔들리고 평민계층들의 활동이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중된다.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을 벗어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 속의 고난을 토로하거나 상층 계급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생겨났다. 이전까지는 상층인의 의식과 생활에 동화되고자 했던 기녀들의 시조도 더욱 ㉣대담하고 본능적인 사랑의 욕구를 표현하게 되었다. 사설시조의 왕성한 창작 역시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사설시조는 종장의 3자 첫 음보만을 유지하고 그 외의 마디는 작자의 마음대로 늘려나가는 것인데, 이러한 형식의 유연함은 해학성을 담아내기가 용이해 활발히 향유되었던 것이다.

(나)

사름 사름마다 이 말슴 드러스라
 이 말슴 아니면 사름 아니니
 이 말슴 닛디 말오 빅호고야 마로리이다

<1수>

아버님 날 나긋하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父(부모)웃 아니시면 내몸이 업실났다
 이 덕을 감히려 하니 하늘 ㄱ이 업스셨다 <2수>

종과 향것과를 누려서 삼기시고
 별와 가여미아 이 뜨들 몬져 아이
 흥 ㅁ음매 두 뜯업시 속이디나 마음새이다 <3수>

지아비 밧갈 나간 뒤 밥고리 이고 가
 飯(반상)을 들오되 눈썹의 마초이다
 진실노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ㄷ르실가 <4수>

형님 자신져줄 내조쳐 머궁이다
 어와 더 아스야 어마님 너 스랑이아
 형제웃 不知하면 개도치라 ㅎ리라 <5수>

늬으니는 부모 ㄱ고 얼운은 형 ㄱ튼니
 ㄱ튼되 不恭(불공)하면 어디가 ㄷ를고
 날노셔 ㅁ지어시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6수>
 - 주세붕, 「오륜가」 -

(다)
 두터비 ㅍ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안자,
 건년산 바르보니 백송골이 써 잇겨늘 가슴이 금죽하여 풀떡 쉼어
 내뎡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놀랜 널식만경 에혈질 번ㅎ패라.
 - 작자 미상, 「두터비 ㅍ리를 물고」 -

(라)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든 굽이굽이 ㅍ리라
 -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

(마)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배목걸 새 크
 나큰 장도리로 똥닥바가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불가 하노라
 - 작자미상, 「창 내고자 창 내고자」 -

(가)
 사설시조란 본래 창곡의 명칭으로 쓰이다가 문학상의 갈래를 지칭하는 이름이 된 것이다. 즉, 평시조보다 긴 사설을 촘촘한 장단으로 엮어 부르는 창법의 이름이던 것이 그 부류의 작품들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 형태를 보면, 대개의 경우 종장은 평시조와 비슷한 틀을 유지하되, 초중장 혹은 그 중 어느 일부가 4음보 율격의 정제된 구조에서 현저하게 이탈하여 장형화되어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들을 더 잘게 나누어 옛시조와 사설시조로 혹은 중형시조와 장형시조로 변별하려고 한 예도 있다. 그러나 옛시조(중형시조)와 사설시조(장형시조)의 형태적 차이를 어떻게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변별성보다는 평시조와의 전체적 대비에서 드러나는 형태 및 내용상의 차이가 좀 더 뚜렷하고 중요하다. 이 때문에 문학상의 갈래 개념으로는 이들을 한데 묶어 사설시조라 규정하는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정형으로부터 이탈한 장형화를 형태상의 기본 특질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상의 규범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사설시조를 근대 이전의 자유시라고까지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설시조에 부분적인 정형성 및 율격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초·중·종장의 3장 형식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정형성을 찾아 볼 수 있고, 종장의 첫음보가 평시조만큼 엄격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3음절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할만 하다. 시행을 장형화하는 방법으로는 4음보 단위로 확장하면서 2음보 또는 6음보의 변형을 때때로 삽입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 사설시조의 형식 및 운율이 지닌 자유로움이란 완전한 파격과 불규칙성의 산물이 아니라 이와 같은 험거운 정형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일상어의 산문적 호호과 다채로운 리듬, 어법을 구사하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개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요 개 ㄱ치 알미오라
 꾀온 님 오며는 소리를 ㅎ해치며 ㅍ락 ㄴ리 ㅍ락 반겨셔 내노고
 고온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ㅁ르락 나오락 ㄱ강 ㅈ져셔 도라가
 게 ㅎ다
 싼뱀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다)
 이시럼 브디 갈자 아니가든 못ㅎ쏸나
 無端이 슬튼야 늬의 말을 드릿는야
 그러도 하 애도애라 가는 ㅈ을 ㄴ리라

(가)

사설시조는 조선 중기 이전에 발생하였지만 대다수의 작품은 조선 후기의 것이며 또한 이 시대의 새로운 관심사와 미적 특질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균형 잡힌 틀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통해 평민적 익살, 풍자와 분방한 체험을 표현함으로써 조선 후기 문학사의 새로운 국면에 크게 기여했다.

사설시조는 전이한 기품과 관조적 심미성을 존중하는 사대부 시조와 달리 거칠면서도 활기에 찬 삶의 역동성을 담고 있다. 사설시조를 지배하는 원리는 웃음의 미학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일상적 삶 속의 갑남을녀들에 대한 해학적 관찰, 중세적 고정관념을 거리낌 없이 추락시키는 풍자, 고달픈 생활에 대한 해학 등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룬다. 아울러 남녀 간의 애정과 기다림, 그리고 성(性)의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평시조에서 자주 보이는 강호의 한가로운 흥취라든가 고사를 노래한 것, 송축(頌祝)과 교훈 등이 담긴 것도 적지 않으나, 이들은 사설시조가 시조와 더불어 당대의 가창문화에서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의 시선에서도 사설시조는 독특한 점이 두드러진다. 평시조를 포함한 일반적 서정시에서 시적 자아는 작자 자신이거나 작자의 체험, 심리가 투영된 상상적 분신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에 사설시조에서는 작자와 수용자가 작중인물 및 사태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두고 희극적으로 객관화하여 보게 하는 시선 유형의 작품들이 평시조에서보다 훨씬 많으며, 이들이 사설시조의 변별적 양상을 드러내는 주요 작품군이 된다.

(나)

노세 노세 매양 줄곧 노세 노세 낮도 놀고 밤도 노세
벽 위에 그린 누른 수탉이 두 날개 탁탁 치며
긴 목을 느리워서 휘휘쳐 울도록 노세그러
인생이 아침이슬이라 아니놀고 어이리.

(다)

두터비폭리를물고두힘우희치드라안자
것년山보라보니白松骨이씨잇거늘가슴이금즉혀여플덕췌내똥다가두
힘아래짓바지거고
모쳐라늘넌넌식만경에헐질변호과라

4. 약장

(가)

약장은 일반적으로 15세기에 조선 왕조의 성립과 번영을 기원하며 만들어진 궁중 악가를 가리킨다. 약장은 단지 조선만이 아니라 고대 국가에서부터 그 개국을 찬양하고 왕의 덕을 기리며 창작되었을 것이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약장이 많지 않을 뿐더러 특히나 고려의 가사는 조선 초에 대부분 개작되거나 소멸되었기 때문에 점차 약장은 조선 초의 것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왕조의 존엄성을 예찬하고 숭고한 정치 이상을 펴는 것이 약장의 창작 목적이었기에 기본적으로 모든 약장의 내용은 동일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장은 각기 상이한 음악에 맞추어 가장 되었기 때문에 형태와 구조면에서 대단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순전한 한시로 표기된 약장이 존재하는가 하면 <납씨가>, <정동방곡>, <문덕곡>과 같이 한시 형태에 국문으로 토를 단 작품도 존재한다. 반면 <신도가>와 <용비어천가>는 우리말의 표현력을 극대화시켜 보여준 약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가>의 경우 일정한 율격 유형을 찾기 어려운 7행의 시행 중간에 '아오 다롱다리'라는 고려가요류의 여음을 넣은 형태를 취했다. <용비어천가>는 맺귀로 이루어진 연이 길게 중첩되는 장편 찬가이다. 또한 <상대별곡>이나 <화산별곡>과 같이 경기체가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약장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그 기능과 지향점이 약장에 속해 《악장가사》에 실리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의 불교적 파생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타 약장과는 달리 석가의 생애를 노래하고 있지만 <용비어천가>와의 유사성과 찬가로서의 자질을 고려해 약장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왕조가 성립되고 그 체제가 안정화된 후로는 국가의 이념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약장은 개국 당시 창작된 이후로는 새로운 작품이 추가되는 일이 드물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부르는 노래가 아닌 국가행사에서 공적으로 이용되는 노래라는 점 또한 약장의 고정성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조선 초기가 지나자 약장이 지닌 찬양과 기원의 성격은 개인 차원의 것으로 변모하였고, 감군은(感君恩)을 노래하는 시조나 가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

네는 楊州 | 소울히여
디위에 新都形勝이샷다.
開國聖王이 聖代를 니르어샷다
жат다운더 當今景 жат다운더
聖壽萬年호샤 萬民의 威樂이샷다.
아오 다롱다리
알곤 漢江水여 뒤흔 三角山이여
德重호신 江山 즈오메 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신도가」 -

(다)

[제1장]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님르샤 일마다 天福(천복)이시니
古聖(고성)이 同符(동부)하시니

[제2장]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필씨 꽃 도쿄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드른 ㄱ르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제3장]

周國(주국) 大王(대왕)이 幽谷(빈곡)에 사르샤 帝業(제업)을 여르시니
우리 始祖(시조) | 慶興(경흥)에 사르샤 王業(왕업)을 여르시니

[제125장]

千世(천세) 우희 미리 定(정)하산 漢水北(한수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하샤 卜年(복년)이 ㄱ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하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넘급하 아르쇼셔 洛水(낙수)에 山行(산행) 가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용비어천가 -

5. 가사

(가)

가사의 양식적 조건은 극히 단순하여 두 마디씩 짝을 이루는 율문의 구조만 갖추면 길이에 상관없이 어떤 연속체 시기도 가사가 될 수 있었다. 형식적 제약이 강하지 않은 만큼 가사는 그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하다. 서정성이 강한 작품도 있고, 이념이나 교훈을 퍼뜨리기 위한 작품도 있으며, 서사구조를 갖추고 일정한 사건을 이야기해나가는 작품도 존재한다.

가사의 형성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장 활발히 향유되었던 시기는 조선시대이다. 조선시대에는 그 이전부터 불려온 시조가 주류 서사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시조는 형식이 견고하고 길이가 짧아서 복잡다단한 삶의 경험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어려웠다. 이 때문에 보다 긴 형식의 노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당대에 이미 존재했던 장형 시가양식인 경기체가나 약장은 창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각기 한계가 있었다. 경기체가는 양식적 정형성이 강력하여 유연하게 활용되지 못했고, 약장 또한 궁중음악이라는 장르적 위상이 명백해 널리 통용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 다소 느슨한 가사라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사는 크게 15~16세기의 조선 전기 가사, 17~19세기 전반까지의 조선 후기 가사, 그리고 19세기 후반의 개화기 가사로 나뉜다. 전기 가사는 주로 양반층에 의해 창작되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낀 흥취와 자신의 신념을 가사의 유연한 포용력에 기대어 자유로이 노래했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며 조화를 추구하는 강호시가로서의 가사가 두드러진다. 당대 사대부들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희생을 겪은 뒤 도학적인 삶을 통해 그 좌절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임진왜란을 경계로 조선 후기 가사에 접어들면 가사의 작자층과 내용은 보다 다양해진다. 전원적 삶을 노래하는 서정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일상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풍물가사와 기행가사, 유배가사 등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양반층 외에 부녀자와 평민이 새로운 작자층으로 등장했는데, 이 가운데 사대부층 부녀들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된 가사를 규방가사라고 부른다. 규방가사는 여성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나 개인의 특기할 만한 체험을 소상히 기록했다. 평민층의 가사는 세 계열로 세분할 수 있다. 당대 사회의 모순에 의해 고통 받는 민중의 모습을 그린 것이 첫 번째 계열이라면, 그러한 부패한 사회 속 탐욕스러운 인물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것이 두 번째 계열이다. 마지막으로 남녀 간의 애정을 소재로 욕구의 좌절이나 성취를 나타낸 가사를 세 번째 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이후의 개화기는 여러 이념들이 격동했던 시기로, 가사에서도 특정 사상을 표방하는 교술적 속성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가사는 쉽게 가창될 수 있도록 분량이 축소되고 분연(分聯) 형식을 도입하는 등 형태상으로도 큰 변화를 보인다. 초반에 낙관적 개화주의에 도취되어 있던 이러한 개화기 가사는 국운이 기울어감에 따라 냉혹한 국제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정신이 강해져갔다.

(나)
 너 말슴 광언(狂言)인가 저 화상을 구경하게.
 남촌 활랑(閑良) 기쫓이느 부모 덕에 편이 놓고
 호의 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야,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랏 업시 쥬져 넘어
 시체(時體)싸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것다.
 장장 춘일 낮잠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
 띠팔자로 무상 출입 띠일 장취 계 트림과
 이리 모야 노름 놀기 저리 모야 투전(鬪錢)질에
 기싱첩 치가(治家)하고 외입장이 친구로다.
 스랑의는 조방(助幫)군이 안방의는 노구(老嫗)할미.
 명조상(名祖上)을 써세하고 세도 구멍 기웃 기웃,
 염냥(炎涼) 보아 진봉(進奉)허기 직업(財業)을 까블니고
 허욕(虛慾)으로 장스허기 남의 빚시 톱산이라.
 - 작자 미상, 「우부가」 -

(다)
 대조선국건양원년 즈주독립깃버히세
 남군의충성하고 정부를보호히세
 나라도를싱각으로 시종여일동심히세
 집을각기흥히려면 나라몬져보전히세
 나라위히죽는죽임 영광이제원한업네
 우리나라흥히기를 비는이다하느남의
 - 서울 순청골 최돈성의 글 -

〈2장〉 고전 해석 기초 연습

A. 어휘

■ 명사 - 이것만은 알고 가져

	고 어	현 대 어	예 문
1	벽계(碧溪) (수)	푸른 시내(물)	청산리 벽계 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2	나리(들)	시내(물)	정월 나릿 들은 어저 녹져 하는데
3	건곤	하늘과 땅	건곤 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 빛 인제
4	뫼	산	높은 뫼 에 올라보니
5	딕	들	무릉이 가깝도다 저 딕 이 권거 이고
6	메	밥	제사에 오르면 진메 이니
7	별헤	벼랑에	별헤 바른 빛 다호라
8	그롬(가람)	강	그롬 그에 자거늘
9	꽃(꽃, 꽃)	꽃	꽃 도쿄 여름 하느니
10	행화(杏花)	살구꽃	도화 행화 는 석양리에 피여 있고
11	이화(梨花)	배꽃	이화 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 인제
12	도화(桃花)	복숭아꽃	떠오느니 도화 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13	부용(芙蓉)	연꽃	부용 을 고갯는듯,
14	녹양(양류)	버드나무	양류 세지 사사록하니
15	시비	사립문	시비 에 거러보고 정자에 안자 보니
16	사창(紗窓), 옥창, 규방	여인이 기거하는 방	사창 여인 잠, 옥창 에 심근 매화 몇 번이고 피여진고
17	깃	비단	긴 깃 을 채뻗는 듯
18	금수(錦繡)	수놓은 비단 (아름다운 경치 비유)	금수 를 펼쳐놓은 듯
19	날애(날이)	날개	향므든 날애 로 님의 옷에 올므리라
20	중싱(중생)	짐승	
21	나조	저녁	아침에는 채산하고 나조 에는 조수하세

	고 어	현 대 어	예 문
22	혜음(혜, 험가림)	생각, 시름, 걱정	흐튼 혜음 아니하네, 험가림도 하도 할샤
23	연하(煙霞)	안개와 노을	연하 일휘는 금수를 재뻗는듯
24	흐르	하루	흐르 도 열두때 한달도 서른 날
25	조화옹	조물주	어화 조화옹 이 현사토 현샤할샤
26	빅구(백구)	갈매기	빅구 야 나디마라 네벳인줄 엇디 아는
27	해오라비	백로	해오라비 물속을 여어 무엇하려느냐
28	계집,겨집	아내, 여자	계집 은 조희를 그려 장기파늘 밍글어늘
29	관산	국경, 관문, 요새	싸움터의 말이 관산 북녀고 잇느니
30	이릭	아양	이릭 야 교태야 어즈러이 구똥던디
31	황운	누런 구름 (누런 곡식 비유)	황운 은 또 엇디 만경에 퍼져디오
32	하처(새처)	숙소	하처 라고 차자가니
33	쌈(싸)	땅	남의 쌈 에 낫느니
34	침선	바느질	
35	마 (음우, 궂은 비)	장마	여름날 길고길게 궂은비 는 므스 일고
36	세우	가는 비(봄비)	녹양방초는 세우 중에 프르도다
37	넙비/곰비	앞/뒤	덕으란 넙비 에 받좁고 북으란 곰비에 받좁고
38	즈문(은)	천(백)	즈문 해를 외오곰 녀신들
39	청약립/녹사의	삿갓/도롱이	청약립 은 써있노라 녹사의 가져오냐
40	실술	귀뚜라미	실술 이 상에 올제, 실술의 녀시 되야
41	여름	열매	꽃 도쿄 여름 하느니
42	녀름	여름	강마을 긴 녀름 에
43	궂술	가을	궂술 궂리미 서늘하니
44	궂술(궂을)	마을	궂술 을 야나 흐르느니
45	궂	끝	궂 없는 긴 궂르믄 니업니어 오숫다
46	촉(燭)	촛불	촉 잡고 사랑할제

	고 어	현 대 어	예 문
47	남여(여)	가마(들쫓)	남녀 를 비야 타고
48	시앗	첩	여우같은 시앗 년에
49	수품(手品)	솜씨	수품 은 궂니와 제도도 가질시고
50	갓	성(城)	갓 안 보미 플과 나모만이 우거졌도다
51	파람	휘파람	파람 흐락 노헤로 놀거니
52	우음	웃음	말씀도 우음 도 아녀도

㉠ 동사, 형용사 - 이것만은 알고 가자

	고 어	현 대 어	예 문
1	녀다 (니다, 녀다)	살다, 지내다, 가다	니를 피쳐 녀곤 오늘도 가배삿다
2	여히다(여히다)	이별하다, 헤어지다	고온님 여히압고
3	드외다	되다	
4	하다	많다, 크다	널라와 시름 한 나도
5	흐다	하다	
6	괴다	사랑하다(정신적)	어마님가터 괴시리 업세라
7	얼다	통정하다(육체적)	어른 님 오신날 밤이여든
8	미다	미워하다	미리도 괴리도 업시
9	슬타	싫다	내 빈천을 슬히 녀겨
10	슬피다	싫어지고 미워지다	귀에 관환이 슬미니 , 풍경이 못 슬미니
11	슬허하다	슬퍼하다	그를 슬허하노라
12	~을 혀다	켜다(불을, 악기름)	사스미 해금을 혀겨 늘, 노피 현 등블 다호라
13	어리다	어리석다	어린 빅성이 니르고자
14	어엿브다	가엿다	어엿비 녀겨
15	방송하다	석방하다	무죄자 방송할새
16	물색없다	눈치 없다	본관은 물색없이
17	현스흐다 (현사하다)	야단스럽다	어와 조화옹이 현샤토 현사할샤
18	낮브다	부족하다	아침이 낮브거니 나조헤라 유여하라
19	빅다	재촉하다	남녀를 빅 아 타고 술아래 구분길로

	고 어	현 대 어	예 문
20	젓다(저어하다)	두려워하다	하늘도 젓디 아녀 옷독이 씻는 거시
21	뵈다	비다 (비어있다)	주머니 뵈엇거든 빙이라 담겨 사라
22	들다(달다)	달리다	들논듯 따로논듯
23	꺾음열다	풍성하다, 부유하다	건곤도 꺾음열사 간데마다 경이로다
24	삼기다	생기다, 만들어지다	턴디 삼기실제 자연이 되면마는
25	버히다	자르다, 베다	원양금 버히내어 님의웃 만들 고자
26	긋다	끊어지다	긋논듯 잇는듯
27	넋다	이어지다	
28	씩우다	꺼리다	부귀도 날 씩우고 공명도 날씩우니
29	마련하다 (들다, 견화이다)	마름질하다 재단하다	칼로 들아넝가 붓으로 그려넝가
30	외다	그르다, 잘못되다	외다하리 뉘 잇스리
31	선흐다	서운하다	선하면 아니 올세라
32	벼기다	우기다, 모함하다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33	늦기다(느끼다)	흐느끼다	늦기논 듯 반기논듯 님이신가 아닌가
34	이슷하다	비슷하다	산점동새 난 이슷하여이다
35	식여디여	사라져서, 죽어서	차라리 식여디여 뵈나뵈 되오리다
36	똥다	좋다	
37	조타	좋다	조커든 막디 마나 막거든 조티 마나
38	오면되다	방정맞다	오면된 계성의 잠은 엇디 씨듯 던고
39	가시다	변하다, 바뀌다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이시라
40	식오다	시기하다	까마귀 흰비츨 식올세라

㉮ 수식어 계열 - 이것만은 알고 가자

	고 어	현 대 어	예 문
1	흐마(하마)	이미, 벌써	흐마 나를 니즈시니잇가
2	하	몹시	시절이 하 수상하니
3	우리곰	우러러서, 울어올어	우리곰 좇니노이다
4	빗기(비겨)	비스듬히	난간에 비겨서서, 취션을 빗기 시러
5	져근뎛	어느덧, 잠시동안	져근뎛 잠이 들어
6	수이	쉽게	
7	후리쳐	팽개쳐	후리쳐 던져두자
8	대저	무릇, 대체로	
9	므스(므슴)	무엇, 무슨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씨오는가
10	바히	전혀, 아주	
11	즈로	자주	꿈에라도 즈로즈로 뵈시쇼
12	모쳐라	마침	모쳐라 날랜 뵈식일망정
13	고떡(고쳐)	다시	다리고 고쳐 다려
14	건뎛	문득	건뎛 불고 간디 없다
15	슬꺾장	실컷	슬꺾장 거후로니

㉔ 조사, 어미계열 - 이것만은 알고 가져

	고 어	현 대 어	예 문
1	~르세라	~할까 두렵구나	선 후 면 아니 올세라
2	~손딤	~에게	뉘 손딤 배혼다
3	~도곤/~라 와	~보다	여기 도곤 / 닐라와 시름 한
4	우희(우혜)	~전에(시간, 공간)	천세 우희 미리 정하신, 마리 우희 불리고자
5	~딤	~곳(장소)	내 가 논 딤 남 갈세라
6	~제	~때	
7	~크니와	~물론이거 니와, ~은커녕	사람은 크니와 날새도 그쳐 있 다
8	~하	~이여/ 이시여	님 하 / 님 금하 도람 드르샤 괴 오쇼서
9	~곰	강세접미사	달하 노 피곰 도드샤
10	~고져	~하고자	
11	~다호라	갈구나	등불 다호라 / 바론빗 다호라
12	오다, 하다	~라고 한들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13	~다히(다이)	~의 쪽(답계)	님 다히 소식을 아무러면 아자 히니
14	~다려(드려)	~에게	놀 드려 물을런고

㉕ 범례 어휘

1. 자연친화적 태도 - 단사표음, 단표누항, 유유자적, 강호한정, 물외, 음풍농월, 물아일체, 물심일여, 무릉도원 // 산림, 강호, 청풍명월
2. 이상향 - 무릉도원, 극락, 상계, 피안, 승지
3. 세속 - 인간, 인세, 흥진, 진세, 풍진, 사바, 하계, 차안
4. 민간 - 여염, 향간, 여항, 위항, 여리
5. 세월 - 염냥 (추위와 더위), 년광, 광음, 춘추(봄, 가을)

B. 해석

B-1. 해석법

(1)

(2)

(3)

(4)

(5)

(6)

(7)

B-2. 해석법 테마별로 익히기

1. 우국의 마음

(1) 가마귀 검다하고 - 이직

가마귀 검다하고 白鷺(백로)야 웃지 마라
 것치 거문들 속쫓츠 거름소냐
 것 희고 속 거문 즘싱은 네야 권가 흐노라

가마귀(뉘소리) 검다하고(아이이) 백로야 웃지 마라
 것치(받침파괴) 거문들(밀당) 속쫓츠 거름소냐(밀당)
 것(받침파괴) 희고 속 거문(밀당) 즘싱(아이이)은 네야 권가(아이이) 흐
 노라(아이이)

[전문 풀이]

가마귀가 겉으로 보기에 검다하고, 백로야 비웃지 말아라.
 비록 같이 검을지라도 속마음까지 검은 줄 아느냐?
 사실 같이 희면서도 속이 검은 것은 바로 네가 아니더냐?

1. 이 시에서 백로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2.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하고 있다. (○, ×)
3.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 ×)
4. 겉과 속이 다른 가마귀의 모습을 화자는 비판하고 있다. (○, ×)
5. 표면화된 화자가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 ×)

(2) 구름이 無心(무심)튼 말이 - 이존오(李存吾)

구름이 無心(무심)튼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하다.
 中天(중천)에 썬 이셔 任意(임의)로 든니면서
 구텨야 光明(광명)흔 날빛출 짜라가며 답느니.
 <청구영언>

구름이 無心(무심)튼(아이이)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하다.(아이이)
 중천에 썬(시범빠) 이셔(밀당) 任意(임의)로 든니면서
 구텨야(아이이) 光明(광명)흔(아이이) 날빛출 짜라가며(시범빠) 답느니
 (받침파괴)
 <청구영언>

[시어, 시구 풀이]

- ① 구름 : 간신(奸臣), 신돈(辛旽)을 가리킴
- ② 무심(無心)튼 : 사심(邪心)이 없다는
- ③ 허랑(虛浪)하다 : 믿기 어렵다.
- ④ 중천(中天) : 여기서는 '조정' 또는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닌 높은 권세'를 뜻함.
- ⑤ 썬 이셔 : 누리고 있어서
- ⑥ 임의(任意)로 : 마음대로
- ⑦ 든니면서 : 다니면서
- ⑧ 날빛 : 햇빛
- ⑨ 답느니 : 덮느냐. 가리느냐

[전문 풀이]

구름이 사심(邪心)이 없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하늘 높이 떠 있어(떠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텨여 밝은 햇빛을 따라 가며 덮는구나.

1. '무심'은 화자가 거부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시어이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 ×)
2. 이 작품에서 '햇빛'과 '구름'은 상반된 의미로 기능하고 있다. (○, ×)
3.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
4.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생생한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 ×)

(3) 白雪(백설)이 즈자진 골에 - 이색(李穡)

白雪(백설)이 즈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운 梅花(매화)는 어니 곳에 피엿는고.
 夕陽(석양)에 홀로 서 이셔 갈 곳 몰라 흐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백설이 즈자진(밀당) 골에 구루미(밀당) 머흐레라.
 반가운(조화파괴) 梅花(매화)는(아이이) 어니(아이이) 곳에 피엿는고.(아이이)
 夕陽(석양)에 홀로 서 이셔(밀당) 갈 곳 몰라 흐노라.(밀당)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백설(白雪) : 흰 눈. 여기에서는 ‘고려 유신(遺臣)’을 비유함
- ② 구루미 : 구름이. 여기에서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대표하는 조선의 ‘신흥 세력’을 의미
- ③ 머흐레라 : 험하구나.
- ④ 매화(梅花) : 지조, 충성. 여기에서는 ‘우국지사(憂國志士)’를 의미함
- ⑤ 석양 : 기울어가는 고려의 국운 상징
- ⑥ 서 이셔 : 서서

【전문 풀이】

흰 눈이 찾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나를) 반겨 줄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날이 저물어 가는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을 모르겠구나.

- 1. ‘구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이 시에서 알 수 있다. (O, X)
- 2. 석양은 화자에게 흥취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O, X)
- 3. ‘매화’는 지조와 충성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O, X)
- 4. 화자는 현재 부정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O, X)

(4) 간 밤의 부던 바람에 - 유응부(兪應孚)

간 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말가.
 落落長松(낙락장송)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흐믈며 못 다 핀 곳이야 날러 므슴 흐리오.
 <청구영언(靑丘永言)>

간 밤의 부던(르탈락) 바람에(아이이) 눈서리 치단말가.
 落落長松(낙락장송)이 다 기우러(밀당) 가노미라.(아이이)
 흐믈며(아이이) 못 다 핀 곳이야 날러(두음파괴) 므슴 흐리오(아이이).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간 밤의 : 지난 밤에
- ② 부던 : 불던
- ③ 바람에 : 바람에
- ④ 눈서리 : 눈과 서리. ‘수양 대군(세조)의 숙청’을 비유한 말
- ⑤ 치단말가 : 쳤다는 말인가
- ⑥ 落落長松(낙락장송) : 가지가 길게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여기서는 지조가 굳고 고결한 인품의 인재를 가리킴(은유)
- ⑦ 가노미라 : 가는구나
- ⑧ 핀 : 핀
- ⑨ 곳이야 : 꽃이야
- ⑩ 날러 : 일러. 말하여
- ⑪ 므슴 흐리오 : 무엇 하리오

- 1. ‘바람’과 ‘눈서리’는 서로 대비되는 대상이며 ‘바람’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일컫는 말이다. (O, X)
- 2. ‘낙락장송’이 기울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낙락장송’은 간사한 신하를 일컫는 말이겠어. (O, X)
- 3. ‘꽃’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다. (O, X)
- 4.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O, X)

(5) 자경 - 박인로

명경(明鏡)에 티 끼거든 값 주고 닦을 줄

아이 어른 없이 다 알고 있건마는

값없이 닦을 명덕(明德)을 닦을 줄을 모르도다.

성의관(誠意關)* 돌아들어 팔덕문(八德門)* 바라보니

크나큰 한길이 넓고도 곧다마는

어찌타 종일 행인이 오도기도 아닌 게오.

구인산(九仞山)* 긴 솔 베어 제세주(濟世舟)*를 만들어 내,

길 잃은 행인을 다 건네려 하였더니

사공이 변변치 못해 모강두(暮江頭)*에 버렸도다.

- 박인로, 「자경(自警)」

* 성의관 :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문

* 팔덕문 : 여덟 가지 덕을 갖춘 문

* 구인산 : 대덕(大德)으로 비유되는 높은 산

* 제세주 : 세상을 구제할 배

* 모강두 : 저무는 강가

1. 한길'을 넓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한길'은 '행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임을 드러낸 것이군. (○, ×)
2. '구인산'의 '솔'로 만든 배로 '행인'을 건네려 한 것을 보니 '명덕'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군. (○, ×)
3.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
4. '모르도다, 아닌 게오, 버렸도다'와 같이 부정적인 서술어로 끝맺은 것은 현실적 삶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려 함이군. (○, ×)
5. 사공은 임금을 뜻하는 시어로 임금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2. 절개

(1) 눈 마주 휘어진 턱 - 원천석(元天錫)

눈 마주 휘어진 턱을 누라서 굽다던고.
 구불 절(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歲寒孤節(세한 고절)은 너쨌인가 흐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눈 마주(아이) 휘어진 턱(아이) 누라서 굽다던고.
 구불(밀당) 절(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글블블).
 아마도 歲寒孤節(세한 고절)은 너쨌인가(시뻘뻘) 흐노라.(아이)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 ① 굽다던고 : 굽었다고 하던가
- ② 구불 절(절) : 굽힐 절개
- ③ 세한고절(歲寒孤節) : 한겨울 추위도 이겨내는 높은 절개
- ④ 구불 절(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 굽혀질 절개라면 눈 속에 어찌 푸르겠는가. '눈'은 새 왕조 조선에 협력하기를 강요하는 압력, 혹은 그러한 세력을 뜻한다.

[전문 풀이]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던가?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 어찌 푸르겠는가?
 아마도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절개를 가진 것은 너(대나무)뿐일 것이다.

- 1. '눈'은 화자가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산다는 점을 대변하는 시어이다. (O, X)
- 2. '대'를 통해 화자의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O, X)
- 3.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O, X)
- 4. 의인화된 청자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X)
- 5.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O, X)

(2) 수양산 바라보며 - 성삼문(成三問)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齋(이제)를 恨(한)흐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흐는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짜해 낫드니.
 <청구영언>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齋(이제)를(아이) 恨(한)흐노라(아이).
 주려 주글진들(밀당) 採薇(채미)도 흐는것가(아이)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아이) 그 뉘 짜해(밀당,시뻘뻘) 낫드니(받침따과)
 <청구영언>

[시어, 시구 풀이]

- ① 수양산(首陽山) : 백이, 숙제가 은둔 생활을 한 중국의 산. 여기서 는 수양 대군을 가리키기도 함
- ② 채미(採薇) : 고사리를 캐. 고사리를 뜯는 일
- ③ 흐는것가 : 하는 것인가. 해서야 되겠는가
- ④ 푸새엿 것 : 산과 들에 절로 나는 풀 따위

[전문 풀이]

수양산(백이, 숙제가 은둔한 중국의 산, 여기서는 수양대군을 가리키기도 함)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다 절개가 굳은 선비라고 말하는) 백이과 숙제를 오히려 지조가 굳지 못하다고 나는 꾸짖으며 한탄한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 먹어서야 되겠는가?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 1.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O, X)
- 2. 새로운 왕조를 찬양하는 형식을 통해,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O, X)
- 3. 고사의 활용이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O, X)
- 4. 백이 및 숙제와 자신을 은연중에 비교하여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O, X)
- 5.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O, X)

(3) 국화야 너는 어이 - 이정보

菊花(국화)야 너는 어이 三月(삼월) 東風(동풍) 다 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는다.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 뿐인가 ㅎ노라.
 <병와가곡집>

菊花(국화)야 너는 어이 三月(삼월) 東風(동풍) 다 보'고(아이)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는다.(반침파괴, 아이)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 뿐인가(시범뺀) ㅎ노라(아이).
 <병와가곡집>

[시어, 시구 풀이]

- ① 삼월동풍 : 삼월 봄바람
- ② 낙목한천 : 낙엽 떨어지는 차가운 하늘
- ③ 오상고절 : 서리에 굴하지 않고 고고히 절개를 지킴.

[전문 풀이]

국화야 너는 어이하여 삼월 봄바람 다 보내고
 낙엽 떨어지는 차가운 하늘에 네 홀로 피었는가
 아마도 서리발 속에 굴하지 않고 고고한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1. 삼월 동풍은 국화와 긴밀하는 소통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 ×)
2. 의인화된 화자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
3.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
4.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4) 이 몸이 주겨주거 - 정몽주

이 몸이 주겨주거 일백 번 고쳐 주거,
 白骨(백골)이 塵土(진토)되어 녀시라도 잇고 업고,
 님 향한 一片丹心(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이 몸이 주겨주거(밀당) 일백 번 고쳐 주거(밀당),
 백골이 塵土(진토)되어 녀시라도(밀당) 잇고(반침파괴) 업고(반침파괴),
 님(조사생략) 향한 一片丹心(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밀당, 아이)
 으이)

[시어, 시구 풀이]

- ① 고쳐 주거 : 다시 죽어
- ② 백골 :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살이 없어지고 삭아빠진 흰 뼈
- ③ 진토 : 티끌과 흙
- ④ 잇고 업고 : 잇고 없고 간에
- ⑤ 녀시라도 : 낮이라도, 영혼이라도
- ⑥ 일편단심 : 진정에서 우리나라오는 충성된 마음
- ⑦ 가실 줄 ; 변할 줄, 바뀔 줄
- ⑧ 이시랴 : 있으랴

[전문 풀이]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백 번이나 다시 죽어
 백골(白骨)이 흙과 먼지가 되어 낮마저 있던 없어지건
 임금 향한 붉은 마음이야 스러질 리 있으랴?

1. 과장을 통해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 ×)
2.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
3.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
4. 화자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어조를 보이고 있다. (○, ×)
5. 일편단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화자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

3. 연군

(1) 삼동에 뱀뿔 남고 - 조식(曹植)

三冬(삼동)에 뱀뿔 남고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
 구름 낀 뱀뿔도 썩 적이 업건마는,
 西山(서산)에 히지다 히니 눈물겨워 흐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三冬(삼동)에 뱀뿔 남고(두음파괴)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받침파괴)
 구름 낀(시범뱀) 뱀뿔도(받침파괴) 썩(시범뱀) 적이 업건마는(받침파괴,
 아이),
 西山(서산)에 히지다(아이) 히니(아이) 눈물겨워 흐노라(아이).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 ① 삼동(三冬) : 겨울의 석달. 한겨울
- ② 뱀뿔 : 베로 지은 옷.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입는 옷
- ③ 암혈(巖穴) : 바위와 굴. 은둔자가 거처하는 곳
- ④ 뱀뿔 : 별 기운. 임금의 은총을 뜻함. '뉘'는 대단치 않은 것. 작은 것을 뜻하는 접미사
- ⑤ 히 : 임금(중종)을 상징함
- ⑥ 히지다 : 임금의 승하
- ⑦ 三冬(삼동)에 뱀뿔 남고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 : 세상을 등지고 사는지라, 한겨울에도 뱀뿔을 입고 은둔지에서 추운 겨울을 내고 있어
- ⑧ 구름 낀 뱀뿔도 썩 적이 업건마는, : 환한 햇별은 고사하고 구름에 가린 약한 별 기운이라도 썩 적이 없지마는. 즉 벼슬을 하지 않은 몸이라 국록(國祿)을 먹거나 임금의 은총을 받은 적이 없지마는
- ⑨ 西山(서산)에 히지다 히니 눈물겨워 흐노라. : 임금(중종)께서 승하하셨다 하니 슬퍼서 눈물이 흐르는구나.

[전문 풀이]

한겨울에 베로 만든 옷을 입고, 바위 굴에서 눈비를 맞고 있으며(벼슬한 적이 없이 산중에 은거한 몸이며)
 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별도 썩 적어 없지만(임금의 은혜를 입은 적도 없지만)
 서산에 해가 졌다(임금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

- 1. '삼동'과 '뱀뿔'의 화자의 현재 처지를 잘 보여주는 소재들이다. (○, ×)
- 2. 서산에 해가 지는 모습은 화자에게 흥취를 주는 낭만적 배경이다. (○, ×)
- 3. 화자는 현재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 ×)
- 4. '뱀뿔'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조바심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 ×)
- 5. 화자는 현재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

(2) 간 밤의 우연 여흥 - 원호(元昊)

간 밤의 우연 여흥 슬피 우리 지내어다.
 이제야 생각해니 님이 우리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저 나도 우리 네리라.
 <청구영언(靑丘永言)>

간 밤의 우연(=탈락) 여흥(=은 간혹 탈락) 슬피 우리(밀당) 지내어다.
 이제야 생각해니(아이이) 님이 우리(아이이)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리(밀당) 흐르고저 나도 우리(밀당) 네리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여흥 : 여윌. 물살이 세계 흐르는 곳
- ② 거스리 : 거슬러
- ③ 네리라 : 가겠도다

[전문 풀이]

지난 밤에 울며 흐르던 여윌, 슬프게도 울면서 흘러가도다.
 이제야 생각해니 (그 슬픈 여윌물 소리는) 임이 울어 보내는 소리로다.
 저 물이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구나. 나도 울면서 가리라.

- 1. '여윌'의 화자의 애상적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다. (O, X)
- 2. 거스르는 물에 대한 화자의 분노가 내포되어 있다. (O, X)
- 3. 임과 함께 하는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고 있다. (O, X)
- 4. 표면화된 화자가 등장하고 있다. (O, X)
- 5. 대립적인 시어를 병치함으로써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O, X)

(3) 방 안에 헛는 촛불 - 이개(李愷)

房(방) 안에 헛는 燭(촛)불 놀과 離別(이별) 하였관디,
 것흐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르논고.
 우리도 더 燭(촛)불 갖하야 속타는 줄 모르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房(방) 안에 헛는 燭(촛)불(받침파괴) 놀과 離別(이별) 하였관디.(아이이)
 것흐로(받침파괴, 밀당) 눈물 디고(뒤집) 속타는(아이이) 줄 모르논고(아이이).
 우리도 더(구개음화) 燭(촛)불 갖하야(받침파괴) 속타는(줄 모르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 ① 헛는 : 켜. 켜 있는.
- ② 촛(燭)불 : 촛불
- ③ 놀과 : 누구와
- ④ 이별(離別) 하였관디 : 이별하였기에
- ⑤ 디고 : 흘리고. 원뜻은 '떨어지고'
- ⑥ 房(방) 안에 헛는 燭(촛)불 놀과 離別(이별) 하였관디, : 임(단종)과의 이별을 뜻함
- ⑦ 우리도 더 燭(촛)불 갖하야 속타는 줄 모르노라. : 속이 타듯 하는 한(恨)

[전문 풀이]

방 안에 켜 있는 촛불은 누구의 이별을 하였기에
 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 들어가는 줄을 모르는가?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슬퍼 눈물만 흘릴 뿐) 속이 타는 줄을 모르는구나.

- 1. 촛불과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이다. (O, X)
- 2. 표면화된 화자가 시에 등장하고 있다. (O, X)
- 3.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O, X)
- 4.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연 합일의 경지를 보이고 있다. (O, X)

(4) 내 마음 버혀 내어 - 정철

내 마음 버혀 내어 더 둘을 빙글고져
 구만리 당턴의 번듯시 걸려 이셔
 고은 님 겨신 고딧 가 비최여나 보리라.

내 마음(아이) 버혀 내어 더(뒤질래) 둘(아이) 빙글고져(아이)
 구만리 당턴의(뒤질래) 번듯시(아이) 걸려 이셔(밀당)
 고은(모음조화파괴) 님 겨신 고딧(밀당, 받침파괴) 가 비최여나(모음조
 화파괴) 보리라.

【시어, 시구 풀이】

- ① 버혀 내어 : 베어 내어
- ② 더 : 저
- ③ 빙글고져 : 만들고 싶구나
- ④ 구만리 당턴 : 아득히 먼 하늘
- ⑤ 번듯시 : 번듯하게, 뚜렷하게
- ⑥ 이셔 : 있어
- ⑦ 고딧 : 곳에
- ⑧ 비최여나 보리라 : 비추어 보리라.

【전문 풀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마음을 베어서 저 달을 만들어 보고 싶구나.
 그리하여 멀고 먼 푸른 하늘에 번듯이 떠 있으면서
 임금님이 계신 곳을 훤히 비추어 드렸으면 한다.

1. 임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상징적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
2. 부귀공명과 자연의 지향점 사이에서 고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
3. 화자의 분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4. 임에 대한 원망이 시 전반에 표출되어 있다. (○, ×)
5. 임에 함께 넓은 세계로 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

(5) 올히 달은 다리 - 김구

올히 달은 다리 학기 다리 되도록애
 거은 가마괴 해오라비 되도록애
 享福無疆(향복무강) 허샤 億萬歲(억만세)를 누리소서

올히(아이) 달은(뒤질) 다리 학기 다리 되도록애
 거은(밀당) 가마괴(뒤소리, 모음조화파괴) 해오라비 되도록애
 享福無疆(향복무강) 허샤(모음파괴) 億萬歲(억만세)를(아이) 누리소서

【시어, 시구 풀이】

- ① 올히 : 오리의
- ② 달은 : 짧은
- ③ 학기 : 학의
- ④ 되도록애 : 도도록까지
- ⑤ 가마괴 : 까마귀
- ⑥ 해오라비 : 해오라기, 백로
- ⑦ 향복무강 : 끝없이 복을 누리
- ⑧ 억만세 : 억만년
- ⑨ 누리소서 : 누리십시오.

【전문 풀이】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처럼 길어지도록 까지,
 검은 까마귀가 해오라기처럼 희게 되도록 까지
 아무 탈없이 복을 누리며 억만년까지 사시기를.

1.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
2. 시적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 ×)
3.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은연중에 대상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
4.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생함을 드러내고 있다. (○, ×)

(6) 천만리 머나먼 길에 - 왕방연

千萬里(천만리)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옵고
 너 마음 돌디 업셔 닛궤에 안즈시니
 저물도 내 안 궤도다 우러 밤길 네놋다

千萬里(천만리) 머나먼 길히(ㅎ탈락) 고은(물블플) 님 여희옵고(ㅎ탈락)
 너(아으) 마음(아으) 돌디 업셔(밀당) 닛궤(아으) 안즈시니(밀당)
 저물도(물블플) 내 안 궤도다(반침파괴) 우러(밀당) 밤길 네놋다

[시어, 시구 풀이]

- ① 고은 님 : 어여쁜 임. 여기서는 단종임
- ② 여희옵고 : 이별하옵고
- ③ 안즈시니 : 앉아 있으니
- ④ 안 : 마음, 마음 속
- ⑤ 궤도다 : 같도다.
- ⑥ 우러 : 울어
- ⑦ 네놋다 : 가도다

[전문 풀이]

천 리 만 리 머나먼 길에 고은 님(단종)과 이별하고
 나의 슬픈 마음을 의탁할 곳 없어 냇가에 앉으니
 저 시냇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며울며 밤길을 흐르네.

1. '물(물)'은 화자의 마음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 ×)
2. 수치 표현을 사용하여 임과의 단절로 인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3. 냇가에서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가 은연중에 깔려 있다. (○, ×)
4.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형상화되어 있다. (○, ×)

(7) 풍상이 섰거친 날에 - 송순

風霜(풍상)이 섰거친 날에 궤 픽은 黃菊花(황국화)를
 金盃(금분)에 가득 담아 玉堂(옥당)에 보너오니
 桃李(도리)야, 곳이오냥 마라 님 뜻을 알괘라

풍상이 섰거친(밀당) 날에 궤(아으) 픽은 황국화를
 금분에 가득(아으이) 담아 玉堂(옥당)에 보너오니(아으이)
 桃李(도리)야, 곳이오냥(된소리) 마라(밀당) 님 뜻을(시뻘뻘) 알괘라

[시어, 시구 풀이]

- ① 풍상 : 바람과 서리
- ② 섰거친 : 뒤섞이어 친
- ③ 궤 픽은 : 방금. 갓 핀
- ④ 황국화 : 노란 국화
- ⑤ 금분 : 좋은 화분
- ⑥ 옥당 : '홍문관'의 다른 이름
- ⑦ 도리 : 복숭아와 자두
- ⑧ 곳이오냥 ; 꽃인 체
- ⑨ 뜻을 : 뜻을
- ⑩ 알괘라 : 알겠구나.

[전문 풀이]

바람과 서리가 뒤섞이어 내린 날에 이제 막 핀 노란 국화를
 금빛 화분에 가득 담아 홍문관에 보내시니,
 복사꽃, 오얏꽃들이 너희들은 꽃인 체도 하지 마라. 임금님의 뜻을 알겠구나.

1. 풍상을 견뎌내는 국화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 ×)
2. 도리에게 말을 건네면서 말을 건네는 대상에 대한 애뜻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3. 국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시어로 '도리'와 유사한 대상이다. (○, ×)
4. 황국화를 임에게 보내는 화자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잘 드러난 시이다. (○, ×)

4. 연정

(1) 귀쫂리 저 귀쫂리 - 지은이 미상

귀쫂리 저 귀쫂리 어엿부터 저 귀쫂리
 어인 귀쫂리 지는 들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節節(절절)이 슬
 픈소리 제 혼자 우리 네어 紗窓(사창) 여원 잠을 슬쁘리도 깨오논고야.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뜻 알리는
 너쨌인가 ㅎ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귀쫂리(시뻘뻘) 저 귀쫂리(시뻘뻘) 어엿부터(어휘) 저 귀쫂리(시뻘뻘)
 어인 귀쫂리(시뻘뻘) 지는(아이) 들(아이) 새는(아이) 밤의 긴 소
 리 자른 소리 節節(절절)이 슬픈소리 제 혼자 우리(밀당) 네어 紗窓(사
 창) 여원 잠을(아이) 슬쁘리도(아이, 시뻘뻘) 깨오논고야(아이).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뜻 (시뻘뻘)
 알리는 너쨌인가(시뻘뻘) ㅎ노라(아이).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 ① 우리 네어 : 계속해서 울어
- ② 사창(紗窓) : 비단으로 장막을 친 방. 여자의 거처. 규방(閨房)
- ③ 여원 잠 : 살풋 든 잠
- ④ 슬쁘리도 : 알뜰히도. 여기서의 잘도
- ⑤ 무인동방(無人洞房) : 임이 없는 외로운 여인의 방
- ⑥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뜻 알리는 너쨌인가 ㅎ노라. : 두어라, (귀뚜라미가) 비록 미물이지만 독수공방하는 나의 심정을 알아 주는 유일한 것이다. 귀뚜라미와 시적 자아가 물아일체, 동병상련의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다.

[전문 풀이]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찌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로 저 혼자 계속 울어, 비단 창문 안에 열린 잠을 잘도 깨우는 구나.
 두어라, 제가 비록 미물이지만 독수공방하는 나의 뜻을 아는 이는 저 귀뚜라미뿐인가 ㅎ노라.

- 1.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애뜻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 2. 화자의 처지가 '결'구에 잘 드러나 있다. (○, ×)
- 3. 의인화된 청자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더욱 세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 ×)
- 4. 귀뚜라미에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어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 5. 특정한 율격 구조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더하고 있다. (○, ×)

(2)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 지은이 미상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외해 매게 쫘친 가토리 안과,
 大川(대천) 바다 한가운데 一千石(일천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것고 치도 싸지고, 바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천리 만리) 나쁜디 四面(사면)이
 거머어득 저뭇 天地寂寞(천지 적막) 가치노을 쫘는디, 水賊(수적) 만난
 都沙工(도사공)의 안과,
 엇그제 님 여힌 내 안하야 엇다가 ㄱ을ㅎ리오.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나모도(모음조화파괴) 바히들도(ㅎ탈락) 업슨(밀당) 외해(ㅎ탈락) 매게
 쫘친(밀당, 시범빠) 가토리(모음조화파괴) 안과,
 大川(대천) 바다 한가운데(아이) 一千石(일천 석) 시른(밀당) 비에(아이
 이), 노도 일코(밀당) 닛도 일코(밀당) 농총도 근코 돛대도 것고 치도 싸
 지고(시범빠), 바람(아이) 부러(밀당) 물결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진(아이
 이)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천리 만리) 나쁜디(밀당) 四面(사면)이 거머어
 득(밀당) 저뭇 天地寂寞(천지 적막) 가치노을 쫘는디(시범빠), 水賊(수적)
 만난 都沙工(도사공)의 안과,
 엇그제(받침파괴) 님 여힌 내 안하야(ㅎ탈락) 엇다가(밀당) ㄱ을ㅎ리오
 (아이이).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 ① 바히들 : 바닷돌. '바히'만 따로 '전혀'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음
- ② 쫘친 : 쫘긴
- ③ 안 : 속 마음
- ④ 농총 : 용총(龍聰). 돛대에 맨 굵은 줄
- ⑤ 치 : 키. 배의 뒤에 달려서 방향을 조절하는 기구
- ⑥ 나쁜디 : 넘는데. 더 되는데
- ⑦ 거머어득 : 검고 어두운 곳

- ⑧ 가치노을 : 까치놀. 사나운 물결. 사나운 파도 위의 떠도는 흰 거품
- ⑨ 도사공(都沙工) : 사공의 우두머리
- ⑩ ㄱ을ㅎ리오 : 견주리오. 비교하겠는가
- ⑪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외해 매게 쫘친 가토리 안과, : 나무나 바위라도 있으면 숨기라도 하련만 그런 것조차 전혀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쫘기는 까투리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입을 잃은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절박하다는 말이다.
- ⑫ 엇그제 님 여힌 내 안하야 엇다가 ㄱ을ㅎ리오 : 까투리나 도사공의 심정보다도 나의 심정이 더욱 안타깝고 참담함을 표현하고 있다.

【전문 풀이】

나무도 돌도 전혀 없는 산에 매한테 쫘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 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일고, 닛도 일고, 용총(돛대의 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찾아진 날에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았는데 사면은 검어 어둡고, 천지 적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해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엇그제 임 여힌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하리오?

1. 도사공과 가토리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다. (○, ×)
2. 증상에 등장하는 열거, 점층, 과장을 통해 절절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
3. 현재 화자는 수적을 만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 ×)
4. 설상가상의 처지보다도 심각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어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 ×)

(3) 님이 오마 ㅎ거늘 - 작자 미상

님이 오마 ㅎ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中門(중문) 나서 大門(대문) 나가 地方(지방) 우희 치드라 안자 以手(이수)로 加額(가액)ㅎ고 오논가 가논가 건년 山(산) 바라보니 거머핍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빅님빅 님빅곰빅 천방지방 지방천방 존디 ㅁ른디 곱희지 말고 위령총창 건너가셔 情(정)옛말 ㅎ려 ㅎ고 ㆁ눈을 ㅎ긋트 보니 上年(상년) 七月(칠월) 사흔날 곱가벽긴 주추리 삼대 ㅎ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 망정 ㅎ혀 ㆁ이런들 ㆁ 우일 번ㅎ괘라.

〈진본 청구영언(珍本 靑丘永言)〉

님이 오마 ㅎ거늘(아이)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中門(중문) 나서 大門(대문) 나가 地方(지방) 우희(ㅎ탈락) 치드라(밀당) 안자(밀당) 以手(이수)로 加額(가액)ㅎ고(아이) 오논가(아이) 가논가(아이) 건년 山(산) 바라보니(아이) 거머핍들(아이) 셔 잇거늘(밀당) 저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밀당) 품에 품고 신 버서(밀당) 손에 쥐고 곰빅님빅 님빅곰빅 천방지방 지방천방 존디 ㅁ른디(아이) 곱희지(아이) 말고 위령총창 건너가셔 情(정)옛말 ㅎ려 ㅎ고(아이) ㆁ눈(받침파괴)을 ㅎ긋트(아이) 보니 上年(상년) 七月(칠월) 사흔날 곱가벽긴(아이, 받침파괴) 주추리 삼대 ㅎ드리도(아이) 날 소겨다(밀당).

모쳐라 밤일식 망정 ㅎ혀(ㅎ탈락) ㆁ이런들(받침 파괴) ㆁ(아) 우일 번ㅎ괘라.(아이)

〈진본 청구영언(珍本 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일 : 일찍
- ② 지방(地方) : 문지방
- ③ 이수(以手)로 : 손으로
- ④ 가액(加額)하고 : 이마를 가리고
- ⑤ 거머핍들 : 검은 빛과 흰 빛이 뒤섞인 모양
- ⑥ 곰빅님빅 : 엮치락뒤치락. 연거푸 계속하여
- ⑦ 천방지방 : 허둥거리는 모습
- ⑧ ㄹ ㆁ : ㆁ 곳
- ⑨ 위령총창 : 급히 달리는 발소리
- ⑩ 정(情)옛말 : 정이 든 말
- ⑪ 상년(上年) : 작년
- ⑫ 삼대 : 삼의 줄기. 마경(麻莖)
- ⑬ 모쳐라 : 그만 두어라
- ⑭ 우일 : 웃길

【전문 풀이】

님이 오겠다고 하기에 저녁 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나와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손을 이마에 대고 임이 오논가 하여 건너산을 바라보니, 거무희흑한 것이 셔 잇기에 저 것이 틀림없는 임이로구나. 버션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엮치락뒤치락 허둥거리며 ㆁ 곳, ㅁ른 곳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이 넘치는 말을 하려고 ㆁ눈으로 ㅎ긋트 보니, 작년 7월 3일 날 껌질을 벗긴 주추리 삼대(씨를 받느라고 그냥 발머리에 세워 둔 삼의 줄기)가 ㆁ뜰하게도 나를 속였구나.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ㆁ이였다면 ㆁ 웃길 뻔했구나.

1.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행동을 묘사했다. (○, ×)
2.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 ×)
3.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했다. (○, ×)
4. 중장이 길고 장황하여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간절하고도 해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5. 중장에 ㆁ을 웃길 뻔한 상황은 모두 초장에 드러나는 '임'에 대한 화자의 애뜻한 마음과 관련이 있다. (○, ×)

(4) 동지사들 지나간 밤을 - 황진이(黃眞伊)

冬至(동지)사들 지나간 밤을 한 허리를 베풀 내어,
 春風(춘풍)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췌리라.

〈청구영언(靑丘永言)〉

冬至(동지)사들(아아) 지나간 밤을 한 허리를 베풀 내어,
 春風(춘풍) 니불(두음법칙) 아리(아아) 서리서리 너헛다가(ㅎ탈락),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밀당) 췌리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한 허리 : 허리의 한가운데
- ② 베풀 내어 : 베풀어 내어
- ③ 춘풍(春風) 니불 :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 ④ 서리서리 : 노끈이나 새끼 등을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모양
- ⑤ 어른님 : 얼은 입. 정분(情分)을 맺은 입
- ⑥ 밤이여든 : 밤이거든. 밤이면
- ⑦ 冬至(동지)사들 지나간 밤을 한 허리를 베풀 내어. : 동짓달 지나간 밤 한가운데를 베풀어 내어. 동짓달 긴 밤을 외로이 지내는 여심(女心)이 잘 나타나 있다.
- ⑧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췌리라. : 외롭게 혼자 지낼 때 남는 시간을 임과 함께 지내는 즐거운 시간에 보태어 쓰고 싶다는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노래하였다.

[전문 풀이]

동짓달 지나간 밤의 한가운데를 베풀어 내어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다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정든 입이 오신 밤이면 굵이굵이 펼쳐 내어 그 밤이 오래오래 새도록
 이르리라.

- 1. 의태어를 통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냈다. (○, ×)
- 2. 중장에서는 임과 만날 때까지 흘러가는 시간을 보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 ×)
- 3.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향상화하였다. (○, ×)
- 4.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생한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 ×)
- 5. 화자의 절망감과 무기력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 ×)

(5) 마음이 어린 후니 - 서경덕(徐敬德)

마음이 어린 後(후)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 운산)에 어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항여 권가 흐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마음이(아아) 어린 後(후)니 흐는(아아)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 운산)에 어너(아아) 님 오리마는
 지는(아아) 님(두음법칙, 받침파괴) 부는(아아) 바람에(아아) 항여
 권가 흐노라(아아).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어린 : 어리석은
- ② 만중운산(萬重雲山) : 구름이 겹겹이 낀 산. 험하고 깊은 산. 지은
이가 거처한 현실적 배경
- ③ 어너 : 어느
- ④ 오리마는 : 오겠는가마는
- ⑤ 권가 : 그이인가. 임인가
- ⑥ 마음이 어린 後(후)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 이 초장은 겹손을 나타낸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종장의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 ⑦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너 님 오리마는 : 임이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 속에서도 그리움의 정서가 깃들여 있다.
- ⑧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항여 권가 흐노라. :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 소리에도 임이 아닌가 한다. 도학자 이전의, 인간 본연의 순수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부는 바람에 지는 잎을 도치시켜 표현함으로써 운율을 조성하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냈다.

[전문 풀이]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마다 모두 어리석다.
 겹겹이 구름 낀 산중이니 임이 올 리 없건만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 소리에도 행여나 임인가 하고 생각한다.

- 1. 지는 잎과 부는 바람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소재이다. (○, ×)
- 2.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 3. '만중운산'은 화자의 분신으로 화자의 현재 처지를 잘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 ×)
- 4. 다양한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

(6) 바람도 쉬여 넘는 고개 - 지은이 미상

바람도 쉬여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기.
 산(산)진이 水(수)진이 海東靑(해동청) 보르막도 다 쉬여 넘는 高峯(고봉) 長城嶺(장성령) 고기.
 그 너머 님이 왔다 흐면 나는 아니 흐 번도 쉬여 넘어가리라.
 <악학 습령(樂學拾零)>

바람도(아으이) 쉬여 넘는(아으이) 고기,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아으이) 고기.
 산(산)진이 水(수)진이 海東靑(해동청) 보르막도(아으이) 다 쉬여 넘는(아으이) 高峯(고봉) 長城嶺(장성령) 고기(아으이).
 그 너머(밀당) 님이 왔다(받침따과) 흐면(아으이) 나는(아으이) 아니 흐(아으이) 번도 쉬여 넘어가리라.
 <악학 습령(樂學拾零)>

【시어, 시구 풀이】

- ① 산진(山眞) : 산에서 자란 때
- ② 수진(水眞) : 집에서 길들인 때. 水는 手임
- ③ 해동청(海東靑) : 송골매
- ④ 보르막 : 새끼매를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때. '보르'는 몽고어로 가을이란 뜻임
- ⑤ 그 너머 님이 왔다 흐면 나는 아니 흐 번도 쉬여 넘어가리라. : 사랑의 정열과 의지를 나타냄

【전문 풀이】

바람도 쉬여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송골매 보라매(매의 종류들) 같은 매들도 도중에 쉬어야 넘을 만큼 높은 장성령 고개.
 그 높은 고개 너머에 임이 왔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넘어가리라.

1. 현재 입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더 없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
2. 현재 상황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시 전반에 깔려 있다. (○, ×)
3.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 ×)
4. 쉬어 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

(7) 어저 내 일이야 - 황진이(黃眞伊)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드냐.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뜬여
 보늬고 그리는 情(정)은 나도 몰라 흐노라.
 <진본 청구영언(珍本靑丘永言)>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드냐(밀당).
 이시라(밀당) 흐더면(아으이) 가라마는 제 구뜬여(아으이)
 보늬고(아으이) 그리는(아으이) 情(정)은 나도 몰라 흐노라(아으이).
 <진본 청구영언(珍本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내일이야 : 내가 한 일이어
- ② 흐더면 : 했더라면
- ③ 구뜬여 : 구태여
- ④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뜬여 : '제 구뜬여'는 '임이 구태여' 나, '내가 구태여'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그 책임을 굳이 따져 무엇이겠느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전문 풀이】

아!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구나. 이렇게도 사무치게 그리울 줄을 미처 몰랐더냐?
 있오라 했더라면 임이 굳이 떠나시려 했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 놓고는 이제 와서 새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 자신도 모르겠구나.

1.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2. 후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
3. 행간 걸침 혹은 도치를 사용하여 이별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
4. 다양한 소재의 구체적 사물을 동원하여 화자의 내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8) 어이 못 오던가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노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 城(성) 안에 담 찌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노코 두지 안에 櫃(궤)를 찌고 그 안에 너를 必字形(필자형)으로 結
 縛(결박)하여 너코 雙排目(쌍배목) 외걸쇠 金(금)거북 자물쇠로 슈기슈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니.

흔 해도 열두 달이오 흔 들 설흔 날의 날 와 볼 하루가 업스랴.

〈병와가곡집〉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노 못 오던가.

너 오는(아으이) 길에 무쇠 城(성) 안에 담 찌고(아으이)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노코(밀당) 두지 안에 櫃(궤)를 찌고(아으이) 그 안에
 너를 必字形(필자형)으로 結縛(결박)하여 (아으이) 너코(밀당) 雙排目(쌍배
 목) 외걸쇠 金(금)거북 자물쇠로 슈기슈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
 니 오더니.

흔 해도 열두 달이오(아으이) 흔 들(아으이) 설흔(아으이) 날의 날
 와 볼 하루가 업스랴(밀당).

〈병와가곡집〉

[시어, 시구 풀이]

- ① 무쇠 城(성) : 무쇠로 된 성(城)
- ② 두지 : 뒤주
- ③ 필자형(必字形)으로 結縛(결박)하여 :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오랏줄
로 공공 묶어
- ④ 쌍배목(雙排目) : 겹으로 된 문고리를 걸어 두는 장식
- ⑤ 외걸쇠 : 하나로 된 걸쇠. '걸쇠'는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으로 쓰
는 'ㄱ'자 모양으로 생긴 쇠
- ⑥ 슈기슈기 : 꼭꼭

[전문 풀이]

어찌하여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
고, 집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짝을 짜고, 그 안에 너를 오랏줄로
공공 묶어 넣고, 쌍배목, 외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꼭꼭 잠가 두었느냐?
너 어찌서 그렇게 오지 않았느냐?

한 해는 열두 달이오, 한 달도 서른 날인데, 나를 찾아올 하루의 여유
가 없단 말인가.

- 1. 연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
- 2. 화자의 원망이 '궤' 구에 드러나 있다. (○, ×)
- 3. 화자의 원망의 이유가 초장에 잘 드러나 있다. (○, ×)
- 4. 갑갑한 화자의 마음이 마지막에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

(9) 뫼뻬들 곱히 것거 - 흥량(洪娘)

뫼뻬들 곱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터,
 자시는 窓(창) ㅅ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뫼뻬들 : 산뻬들. 순정(純情)의 상징
- ② 곱히 : 가리어. 곱라
- ③ 님의손터 : 입에게
- ④ 새넙곳 : 새 앞만
- ⑤ 너기쇼셔 : 여기쇼셔. 여기십시오

[전문 풀이]

산에 있는 뻬들가지 중 아름다운 것을 곱라 꺾어 입에게 보내오니
 주무시는 방의 창문가에 심어 두고 살피 주십시오.
 행여 밤비에 새 앞이라도 나면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겨 주십시오.

- 1. 뫼뻬들은 화자의 분신이자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
- 2. 밤비는 화자와 입 사이의 시련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
- 3. 어순을 변경하여 강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
- 4. 아름다운 것을 곱라 꺾는 화자의 태도에서 입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 ×)

(10) 개를 여러문이나 기르되 - 자은이 미상

개를 여러문이나 기르되 요 개긔치 알미오라
 뫼운 님 오며는 쏘리를 해해 치며 썩락 누리 썩락 반겨서 내듯고 고
 온 님 오며는 뫼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서 도라가게 혼
 다
 썩 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사랴.

[시어, 시구 풀이]

- ① 여러문 : 열 마리가 넘게
- ② 알미오라 : 알뫼겠는가.
- ③ 뫼운 : 미운
- ④ 썩락 누리 썩락 : 뛰어올랐다가 내렸다가
- ⑤ 버둥버둥 : 버둥버둥
- ⑥ 므르락 나으락 : 물러갔다가 나아갔다.
- ⑦ 즈져서 : 짓어서
- ⑧ 썩 밥 : 상하여 변한 밥

[전문 풀이]

개를 십 여 마리나 키우는데, 이 개같이 알미우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쏘리를 흔들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반겨
 하며 내달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뫼발을 버둥대며 물러갔
 다 나아갔다 캉캉 짓어 돌아가게 한다.
 밥이 쉬어서 여러 그릇 남아돈다 한들 너에게 먹일 리 있겠느냐?

- 1. 해학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
- 2. 원망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 3.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
- 4. 개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통해 화자의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

〈해석 스킬은 여기까지〉

5. 자연 친화

(1) 십년을 경영하야 - 송순(宋純)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야 草廬三間(초려 삼간) 지어 너니,
 나 한 간 들 한 간에 淸風(청풍) 한 간 맛져 두고,
 江山(강산)은 드릴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 ① 경영(經營)하야 : 계획하여. 마음 속으로 꿈꾸어
- ② 초려삼간(草廬三間) : 세 칸밖에 안 되는 작은 초가. 초가 삼간
- ③ 맛져 : 맡기어
- ④ 江山(강산)은 드릴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 아름다운 산수는 집안에 들여 놓을 곳이(들여 놓을 수가) 없으니, 집 주변에 병풍처럼 돌려 두고 즐겁게 보리라.

[전문 풀이]

십 년을 살면서 초가삼간 지어 났으니
 (그 초가삼간에) 나 한 간, 달 한 간, 맑은 바람 한 간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곳이 없으니 이대로 돌려 두고 보리라.

- 1. 중장은 근경(近景), 종장은 원경(遠景)으로 표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 ×)
- 2. 화자의 풍류적 경지를 물아일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
- 3. 초려삼간은 화자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소재로서 기능하고 있다. (○, ×)
- 4. 청풍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대립하는 존재이다. (○, ×)

(2) 두류산 양단수를 - 조식(曹植)

頭流山(두류산) 兩端水(양단수)를 네 듯고 이제 보니,
 桃花(도화) 쓴 붉은 물에 山影(산영)조차 잠겼세라.
 아희야 武陵(무릉)이 어디오 나는 엔가 하노라.

〈해동가요(海東歌謠)〉

[시어, 시구 풀이]

- ① 두류산(頭流山) : 지리산의 별칭
- ② 양단수(兩端水) : 두 갈래로 갈라진 물줄기. 물 이름
- ③ 네 듯고 : 옛날에 듣고
- ④ 산영(山影)조차 : 산 그림자까지
- ⑤ 잠겼세라 : 잠겼구나. 잠겨 있구나
- ⑥ 무릉(武陵) : 무릉도원의 준말로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에 나오는 이상향

[전문 풀이]

지리산의 두 갈래 흐르는 물을 옛날에 듣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복숭아꽃이 떠나려가는 맑은 물에 산 그림자까지 잠겨 있구나.
 아이야,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 1. 지리산의 물을 화자는 이미 여러 번 눈으로 경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 2. 산 그림자가 잠겨 있는 모습은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
- 3. 문답법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
- 4.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

(3)江山(강산) 조흔 景(경)을 - 김천택(金天澤)

江山(강산) 조흔 景(경)을 힘센이 닷돌 양이면,
 너 힘과 너 分(분)으로 어이하여 엇들쓴이.
 眞實(진실)로 禁(금)히리 업썩씩 나도 두고 논이노라.
 <해동가요(海東歌謠)>

[시어, 시구 풀이]

- ① 엇들쓴이 : 연졌느냐? 얻을 수 있겠는가?
- ② 禁(금)히리 : 금할 사람이
- ③ 논이노라 : 계속 놀고 있노라.
- ④ 江山(강산) 조흔 景(경)을 힘센이 닷돌 양이면 :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차지하기 위해 힘센 사람과 다툴 것이라면. 세속적인 인간사에 매달려 자연 속에서 참다운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은근히 질타하고 있다.

[전문 풀이]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차지하기 위해 다툴 것이라면
 나처럼 힘이 없고 가난한 처지(분수로는)에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을 금할 사람이 없으므로 나 같은
 사람도 두고 즐기노라.

- 1. 자신이 힘이 세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 ×)
- 2. 세속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 (○, ×)
- 3. 자연에 대한 화자의 친화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
- 4.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

(4) 잔 들고 혼자 안자[만흥(漫興)] - 윤선도(尹善道)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허랴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묻내 도하 흐노라.
 <고산유고(孤山遺稿)>

[시어, 시구 풀이]

- ① 뫼흘 : 산을
- ② 오다 : 온가고
- ③ 우음도 : 웃음도
- ④ 아녀도 : 아니하여도
- ⑤ 묻내 도하 : 못내 좋아. 똥대(똥) 좋아하다-好
- ⑥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묻내 도하 흐노라. : 자연에 묻혀 사는 은사(隱士)의 한정(閑情)이 잘 나타나 있다.

[전문 풀이]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해도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랴.
 산은 말슴도 웃음도 짓지 아니하지만, 어떤 말 어떤 웃음보다도 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구나.

- 1.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 2. 이심전심의 태도를 통해 물아일체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 ×)
- 3. 이 시의 주제적 정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볼 수 있겠군. (○, ×)
- 4. 잔을 들고 술을 마시는 행위는 먼 산을 바라보는 행위와 맞물려 자연을 완상하고 즐기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한다. (○, ×)

(5) 草庵(초암)이 寂寥(적료)흔디 - 김수장(金壽長)

草庵(초암)이 寂寥(적료)흔디 벗 업시 혼즈 안즈
 平調(평조) 한 납히 白雲(백운)이 절로 존다.
 언의 뉘 이 조흔 뜻을 알 리 잇다 흐리오.
 <해동가요(海東歌謠)>

[시어, 시구 풀이]

- ① 초암(草庵) : 초가 암자
- ② 평조(平調) : 음계의 명칭. 시조 창법의 하나로서 심한 높낮이가 없이 평화스럽고 낮은 곡조임
- ③ 한납이 : 대엽(大葉)에. '한납'은 곡조 이름인 대엽을 뜻함
- ④ 언의 뉘 : 어느 누가
- ⑤ 언의 뉘 이 조흔 뜻을 알 리 잇다 흐리오 :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알 리가 있다고 하겠는가? '이 좋은 뜻'이란 자연의 풍경과 시조의 곡조가 어울린 흥취를 말한다. 작자의 가객(歌客)으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전문 풀이]

초암이 적적하고 고요한데 친구 하나 없이 앉아서
 나직한 곡조로 대엽(곡조 이름) 가락을 읊으니 흰 구름이 절로 조는 것 같구나.

어느 누가 혼자 즐기는 이 멋을 아는 사람이 있다 하겠는가?

1. 화자는 현재 외로움을 느끼며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O, X)
2. 백운이 조는 모습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시의 주제인 근면 성실함을 부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O, X)
3. '좋은 뜻'은 화자의 흥취와 관련이 있는 시어이며 구름 역시 그러한 경지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O, X)
4. 설의적 표현을 통하여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O, X)

(6) 추강에 밤이 드니 - 월산 대군(月山大君)

秋江(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츠노미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無心(무심)흔 들빛만 싯고 빈 벵 저어 오노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秋江(추강) : 가을철의 강
- ② 드니 : 으스스하여지니
- ③ 츠노미라 : 차구나.
- ④ 드리치니 : 드리우니
- ⑤ 무심(無心)한 : 욕심이 없는. 사심(邪心)이 없는
- ⑥ 저어 : 노를 저어
- ⑦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 낚시에는 관심이 없고 아름다운 자연의 정취에 정신이 팔려 버린 몰아(沒我)의 경지를 노래하였다.
- ⑧ 無心(무심)흔 들빛만 싯고 빈 벵 저어 오노미라. : 세속의 물욕과 명리를 초월한 허심탄회한 심정을 '무심한', '달빛만 실은 빈 배'란 표현으로 형상화하였다.

[전문 풀이]

가을 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갑구나.
 낚시 들이니 고기가 아니 무는구나.
 무심한(욕심이 없는) 달빛만 싯고 빈 배 저어 오노라.

1. '무심'은 화자가 거부하는 삶의 태도로 볼 수 있겠군. (O, X)
2. '빈 배'는 화자의 물욕을 초월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O, X)
3. 고기를 잡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O, X)
4. 가을의 강은 화자에게 무상감을 주는 대상이다. (O, X)

(7) 락얌이 밍다 울고 - 이정선

락얌이 밍다 울고 뜰람이 쓰다 우니
 山菜(산채)를 밍다는가 薄酒(박주)를 쓰다는가
 우리는 草野(초야)에 뭇쳤시니 락고 쓴 줄 몰니라

[시어, 시구 풀이]

- ① 락얌이 : 매미
- ② 뜰람이 : 쓰르라미
- ③ 산채 : 산나물
- ④ 박주 : 변변치 못한 술, 술을 낮추어 말할 때 쓰는 말
- ⑤ 초야 : 궁벽한 시골, 속세를 떠난 곳
- ⑥ 몰니라 : 모르는구나.

[전문 풀이]

매미는 맵다고 울고, 쓰르라미는 쓰다고 우니,
 산나물을 맵다고 하는가, 시금털털 박주를 쓰다 하는가.
 우리는 산야에 뭇혀 살아가니 맵고 쓴 줄을 모르겠도다.

- 1.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다. (○, ×)
- 2. 산채와 박주가 쓰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
- 3. 안빈낙도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가 박주와 산채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 ×)
- 4. 자연을 본받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

(8) 집방석 내지 마라 - 한호

집방석 너지 마라 落葉(낙엽)엔들 못 안즈라
 술불 허지 마라 어제 진 툄 도다온다
 아히야 濁酒山菜(탁주산채)일만정 업다 말고 내여라

[전문 풀이]

짚으로 만든 방석을 내지 말아라. 떨어진 나뭇잎엔들 앉지 못하겠느냐.
 관솔불을 켜지 말아라. 어제 졌던 밝은 달이 돌아온다
 애애 (이 아름다운 가을밤에 진수 성찬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변변
 치 않은 술과 나물일지라도 좋으니 업다 말고 내 오너라.

- 1. 낙엽과 달은 화자의 안분지족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들이다. (○, ×)
- 2. 낙엽은 화자에게 무상감을 부여하는 대상이다. (○, ×)
- 3. 자족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
- 4.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 ×)

(9)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맹사성(孟思誠)

江湖(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흥)이 절로 난다.
 澗磽溪邊(탁료계변)에 錦鱗魚(금린어) | 안주로라.
 이 몸이 閒暇(한가)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江湖(강호)에 녀름이 드니 草堂(초당)에 일이 없다.
 有信(유신)한 江波(강파)는 보내느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江湖(강호)에 ㅁ을이 드니 고기마다 슬져 있다.
 小艇(소정)에 그물 시러 흘리 띄여 더더 두고,
 이 몸이 消日(소일)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江湖(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江湖(강호) : 벼슬을 물러난 한객(閑客)이 거처하는 시골. 자연
- ② 미친 흥(흥) : 솟구쳐 오르는 흥취
- ③ 澗磽溪邊(탁료계변) :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
- ④ 錦鱗魚(금린어) : 싱싱한 물고기가
- ⑤ 亦君恩(역군은)이샀다. :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 ⑥ 녀름 : 여름
- ⑦ 草堂(초당) : 은사들이 즐겨 지내던 별채
- ⑧ 江波(강파) : 강의 물결
- ⑨ 슬져 있다 : 살이 썩 있다. 살이 올라 있다
- ⑩ 小艇(소정) : 작은 배
- ⑪ 흘니 : 흐르게
- ⑫ 더더 두고 : 내버려 두고
- ⑬ 消日(소일)히움도 : 소일하게 됨도. '消日'은 어떤 일에 재미를 붙여 세월을 보냄

- ⑭ 자히 : 한 자가
- ⑮ 남다 : 넘는다. 더 된다
- ⑯ 누역 : 도롱이

【전문 풀이】

강호(자연)에 봄이 찾아오니 깊은 흥이 절로 일어난다.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싱싱한 물고기가 안주로다.
 이 몸이 이렇듯 한가하게 노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덕이시도다.
 (춘사 - 흥겹고 풍류스런 강호 생활)

강호에 여름이 찾아오니 초당에 있는 이 몸은 할 일이 없다.
 신의가 있는 강물결은 보내는 것이 시원한 바람이로다.
 이 몸이 이렇듯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덕이시도다.
 (하사 - 한가한 초당 생활)

강호에 가을이 찾아오니 물고기마다 살이 올라 있다.
 작은배에 그물을 싣고 가 물결 따라 흐르게 던져 놓고
 이 몸이 이렇듯 소일하며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덕이시도다.
 (추사 - 고기 잡으며 즐기는 생활)

강호에 겨울이 찾아오니 쌓인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샷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둘러 덧옷을 삼으니
 이 몸이 이렇듯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덕이시도다.
 (동사 - 안빈낙도하는 생활)

1. 시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
2. 강호를 즐기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화자의 모습이 연마다 드러나 있다. (○, ×)
3. 종장에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
4. 각 연이 비슷한 구조로 표현되어 있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
5. 화자가 고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통해 아직 정계에 미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6. 풍류

(1) 대초 불 불근 골에 - 황희(黃喜)

대초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뿔뜨르며,

벼 뵈 그르헤 게논 어이 누리논고.

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대초 불 : 대추의 불. 붉게 익은 통통한 대추
- ② 뿔뜨르며 : 떨어지며
- ③ 뵈 : 뵈
- ④ 그르헤 : 그루에
- ⑤ 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햅쌀로 빚은 술이 익었는데, 마침 체 장수가 체를 팔고 돌아가니, 그 체로 새 술을 걸러서 마시지 않고 어쩌랴? '술 닉자 체 장스 도라가니'는 금상첨화(錦上添花)의 뜻으로, 속담 '장수 나자 용마(龍馬) 난다.'와 같은 의미이다.

【전문 풀이】

대추가 발갛게 익은 골짜기에 밤이 어찌 (익어) 뚝뚝 떨어지며
 벼를 뵈 그루에 게까지 어찌 나와 다니는가?
 (마침 햅쌀로 빚어 넣은) 술이 익었는데 체 장수가 (체를 팔고) 돌아가니 (새 체로 술을 걸러서) 먹지 않고 어쩌하리.

1. '대추'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
2. 감각적인 소재들을 사용하여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
3. '밤→게→술→때' 맞춘 체 장수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4. 고도의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
5.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

(2) 말 업슨 청산이요 - 성혼(成渾)

말 업슨 靑山(靑山)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 | 로다.

갹 업슨 淸風(청풍)이요, 님즈 업슨 明月(명월)이라.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늙으리라.

〈화원약보〉

【시어, 시구 풀이】

- ① 태(態) 업슨 : 모양이 없는
- ② 갹 업슨 : 값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 ③ 님즈 업슨 : 임자가 없는. 주인이 없는
- ④ 분별(分別) 업시 : 아무 걱정 없이
- ⑤ 말 업슨 靑山(靑山)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 | 로다. : 청산과 유수가 대구가 되어 자연의 의연함과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다. 지은이는 지자(知者)와 인자(仁者)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⑥ 갹 업슨 淸風(청풍)이요, 님즈 업슨 明月(명월)이라. : 청풍과 명월이 대구가 되어 세속을 떠난 자연 친화를 노래하였다.
- ⑦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늙으리라. : 자연 속에 몸을 맡겨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에서 세속적인 근심 걱정 같은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달관의 경지를 노래하였다.

【전문 풀이】

말이 없는 것은 청산이요, 모양이 없는 것은 흐르는 물이로다.
 값 없는 것은 바람이요, 주인 없는 것은 밝은 달이로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병 없는 이 몸은 걱정 없이 늙으리라.

1. 반복과 대구를 활용하여 분별하는 삶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
2. '말', '태'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 ×)
3. 대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
4. 자연의 속성을 세속과 대조하여 예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3) 田園(전원)에 나른 興(흥)을 - 김천택(金天澤)

田園(전원)에 나른 興(흥)을 전나귀에 모도 싣고
 溪山(계산) 니근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히 絳書(금서)를 다스려라 나른 疇(흄)을 보내리라.
 <진본 청구영언(珍本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전나귀 : 밭을 저는 나귀
- ② 계산(溪山) : 계곡을 낀 산
- ③ 흥치며 : 흥겨워하며
- ④ 금서(琴書) : 거문고와 서책
- ⑤ 다스려라 : 준비하여라

[전문 풀이]

전원을 즐기다가 남은 흥을, 밭을 저는 나귀의 등에 모두 싣고
 계곡이 있는 산의 익숙한 길로 흥겨워하며 돌아와서
 아이야, 거문고와 책을 다스려라 남은 세월을 보내리라.

1. 밭을 저는 나귀는 화자의 세계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
2.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화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
3. 거문고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형상화하기 위한 소재이다. (○, ×)
4.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생생함을 부여하고 있다. (○, ×)

(4) 재 너머 成勸農(성권농) 집의 - 정철(鄭澈)

재 너머 成勸農(성권농)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들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를 타고,
 아히야, 네 勸農(권농) 거시냐, 鄭座首(정좌수) 왔다 ㅎ여라.
 <송강 가사>

[시어, 시구 풀이]

- ① 재 : 고개
- ② 成勸農(성권농) : 성흔(成渾)을 가리킴. '勸農(권농)'은 지방의 방(坊)이나 면(面)에 달려 있으면서 농사일을 권장하던 사람
- ③ 언치 : 안장 밑에 끼는 털 형겔
- ④ 지를 타고 : 놀러 타고
- ⑤ 아히야 : 아이야
- ⑥ 鄭座首(정좌수) : 송강 자신을 가리킴. '座首(좌수)'는 향소(鄕所)의 우두머리

[전문 풀이]

고개 너머 사는 성 권농 집의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들고,
 누운 소를 발로 차서 일으켜 언치만 얹어서 놀러 타고,
 아이야, 네 주인 계시냐? 정 좌수 왔다고 여쭙어라.

1. 외양 묘사를 통해 속도 전개를 최대한 늦추고 있다. (○, ×)
2. 과감한 생략이 사용하여 속도감을 주고 있다. (○, ×)
3. 술을 거부하는 화자의 윤리적 삶의 자세가 형상화되어 있다. (○, ×)

7. 바람직한 삶의 자세

(1) 가마귀 싸호는 골에 - 정몽주의 어머니

가마귀 싸호는 골에 白鷺(백로) | 야 가지 마라.
 성년 가마귀 흰빛을 새오나니.
 淸江(청강)에 좋은 시슨 몸을 더러일까 흐노라.

〈남훈태평가〉

[시어, 시구 풀이]

- ① 싸호는 : 싸우는
- ② 골에 : 골짜기에
- ③ 白鷺(백로) | 야 : 해오라기야
- ④ 흰빛을 : 흰빛을
- ⑤ 새오나니 : 시샘하나니. 시기하나니
- ⑥ 淸江(청강) : 맑은 강(물)
- ⑦ 좋은 : 깨끗이
- ⑧ 시슨 : 씻은
- ⑨ 더러일까 : 더럽힐까

[전문 풀이]

가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년 가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염려스럽구나.

- 1. 백로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 ×)
- 2. 색채 대비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
- 3. 가마귀는 서로 시샘하고 싸우는 대상으로 화자는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2) 盤中(반중) 早紅(조홍)감이 - 박인로(朴仁老)

盤中(반중) 早紅(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示由 子(유자) | 안이라도 품엄즉도 흐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없슬시 글노 설워 흐느다.

〈노계집〉

[시어, 시구 풀이]

- ① 반중(盤中) : 소반 가운데. 상 위의
- ② 조홍(早紅)감 : 일찍 빨강게 익은 감. 조홍시(早紅柿)
- ③ 반기리 : 반길 사람이. '아버이'를 말함

[전문 풀이]

소반에 놓인 붉은 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비록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 갈 마음이 있지마는
 품어 가도 반기워해 주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를 서러워합니다.

- 1.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가 드러나 있다. (○, ×)
- 2. 조홍감은 회상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 ×)
- 3. 부모님과 추억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그리움의 정서를 더하고 있다. (○, ×)
- 4. 연쇄와 점층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8. 삶의 고단함

(1) 노래 삼긴 사름 - 신희(申欽)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할샤
 날러 다 못날러 불러나 푸듯든가
 眞實(진실)로 풀릴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진본 청구영언(珍本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삼긴 : 만든
- ② 하도할샤 : 많기도 많구나
- ③ 날러 다 못날러 : 말로 하려 하나 다 못하여. 자신의 생각이 나 마음의 병을 걸으로 완전히 드러낼 수 없는 심정을 의미한다.
- ④ 푸듯든가 : 풀었던가
- ⑤ 풀릴거시면은 : (근심과 걱정이 노래로) 풀리는 것이라면

[전문 풀이]

노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근심과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말로 하려 하나 다 못 하여 (노래로) 풀었던 말인가?
 진실로 풀린 것이면 나도 불려 보고 싶구나.

- 1. 화자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
- 2.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 3.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

(2) 식어머님 며느라기 낫바 - 지은이 미상

식어머님 며느라기 낫바 벽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빛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쳐 온 며느린가. 밤나무 석은 등걸에 휘초리
 나니긋치 양살피신 식어버님, 벗 뵈 쇠뚝긋치 되종고신 식어머님, 삼 년
 (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곳부리긋치 뽕죽흠신 식누의님, 당(唐)피 가론
 밧퓌 돌피 나니긋치 식노란 윗긋 긋든 피뚱 누는 아들 하나 두고,
 건 밧퓌 메긋 긋든 며느리를 어디를 낫바 하시뇨고.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 ① 낫바 : 나빠. '싫어', '미워써'의 뜻
- ② 벽 : 부엌
- ③ 빛 : 빛
- ④ 석은 : 썩은
- ⑤ 휘초리 : 회초리
- ⑥ 나니긋치 : 가느다란 가지가 난 것처럼
- ⑦ 양살피신 : 매서운
- ⑧ 되종고신 : 말라빠진
- ⑨ 겨론 : 결은. 곧, 엮은
- ⑩ 당(唐)피 : 좋은 곡식
- ⑪ 가론 : 경작(耕作)한
- ⑫ 돌피 : 자연생 피
- ⑬ 아들 : 여기서 아들은 어린 남편을 일컫는다. 이 시조에서는 궁극적으로 보잘것없는 남편에게 원망이 집중되어 있다 하겠다.
- ⑭ 건 : 기름진
- ⑮ 메긋 : 메꽃
- ⑯ 빛에 바든 며느린가 - 피뚱 누는 아들 하나 두고, : 아무 이유 없이 며느리를 구박하는 왜곡(歪曲)된 가정 생활을 비판하고 있다.

[전문 풀이]

시어머님 며느라기 미워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빛에 바든 며느리인가, 갑세 쳐 온 며느리인가, 밤나무 썩은 등걸에 휘초리 난 것같이 매서우신 시어버님, 벗 뵈 쇠뚝같이 말라빠진 시어머님, 삼 년 결은(엮은) 망태에 새 송곳부리같이 뽕죽흠신 시누이님, 당피(좋은 곡식) 같은 밧에 돌피 난 것같이 셋노란 오이꽃 같은 피뚱 누는 아들 하나 두고,
 기름진 밧에 메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미워하시뇨고?

- 1. 대상과 화자 자신을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 2.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빛에 바든 며느리라는 사실을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 3. 비유를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
- 4.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3)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 지은이 미상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빅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득닥 바가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볼까 흐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고모장지 : 고무래 들창
- ② 세살장지 : 가는 살의 장지
- ③ 들장지 : 들어 올려서 매달아 놓게 된 장지
- ④ 열장지 : 좌우로 열어 젖히게 된 장지
- ⑤ 암돌저귀 : 문설주에 박는 구멍난 돌저귀
- ⑥ 수돌저귀 : 문쪽에 박는 돌저귀
- ⑦ 빅목걸새 : 문고리에 꿰는 쇠
- ⑧ 잇다감 : 가끔
- ⑨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 가슴을 열지 않고는 못 뺄 정도로 답답하고 다급한 상황을 야단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창'은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조나 근대시에서도 두루 사용되었다.
- ⑩ 고모장지 세살장지 -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 초장의 다급한 상황에 대하여 사설을 늘어 놓음으로써 해학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전문 풀이]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문의 종류) 암돌저귀 수돌저귀(문 다는 데 쓰이는 도구) 배목걸새(문고리에 꿰는 쇠) 크나큰 장도리로 득닥 박아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때면 여달아 볼까 흐노라.

- 1. 열거와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
- 2. aaba의 율격구조가 운율감을 주고 있다. (○, ×)
- 3. 해학적 표현을 통해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재치 있게 풀어내었다. (○, ×)
- 4. 잘못이 없음에도 누명을 쓴 억울한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 ×)

9. 풍자

(1) **헛(덱)들에 동난지이 사오 - 작자 미상**

헛(덱)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수야, 네 황화 그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 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齋(청장) 으스스하논 동난지이 사오.
장수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헛렘은.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 ① 황화 : 잡화(雜貨). 팔려고 내놓은 물건
- ② 무서시라 : 무엇이랴
- ③ 웨는다 : 외치느냐?
- ④ 외골내육(外骨內肉) : '계'를 일컬음. 겉은 딱딱하고 속은 연한 살이 있음을 비유
- ⑤ 소(小)아리 : 작은 다리. '아리'는 '다리'의 옛말
- ⑥ 청장(淸齋) : 진하지 않은 맑은 간장. 뱃속에 들어 있는 푸른 빛깔의 장
- ⑦ 으스스 : 계를 입에 넣고 씹을 때 나는 의성어 표현
- ⑧ 하 거복이 : 너무 거북하게
- ⑨ 장수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헛렘은. : 장수야, 너무 거북하게(너무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게젯 사라고 하려무나. 장수가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반정거리고 있다.

【전문 풀이】

여러 사람들이여, 동난젯 사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 무엇이랴 외치느냐? 사자.

밖은 단단하고 안은 물렁하며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하고 앞뒤로 가는 작은 발 여덟 개 큰 발 두 개 푸른 장이 아스스스하는 동난젯 사오

장수야, 그렇게 장황하게(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게젯이라 하려무나.

- 1. 현학적이며 장황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
- 2. 대화 구성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 ×)
- 3. 묘사를 통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
- 4.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

(2) **두터비 꾀리를 물고 - 지은이 미상**

두터비 꾀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겻년 산(산) 바라보니 白松骨(백송골)이 썬잇거닐 가슴이 금죽하여 풀
덕 썬여 내뺏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놀넨 널식만정 에혈질 변헛괘라.
〈진본 청구영언〉

【시어, 시구 풀이】

- ① 두터비 : 두꺼비
- ② 두힘 : 두엄
- ③ 치드라 : 올라가
- ④ 백송골(白松骨) : 날랜 매의 일종. 흰 송골매
- ⑤ 내뺏다가 : 앞으로 뛰어 나가다가
- ⑥ 잣바지거고 : 자빠졌구나
- ⑦ 널식만정 : 나이있기 망정이지(다행이지)
- ⑧ 에혈질 : 멍들. 어혈(瘀血)이 질
- ⑨ 두터비 꾀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 두꺼비가 파리를 잡음. 양반의 허세(虛勢)
- ⑩ 겻년 산(山) 바라보니 -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 백송골에 놀람. 양반들의 무능(無能)
- ⑪ 모쳐라 - 에혈질 변헛괘라. : 두꺼비의 변명. 양반들의 비굴성(卑屈性)

【전문 풀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기에 가슴이 섬뜩하여 펄떡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다쳐서 멍들 뻘뻘구나.

- 1. 대상의 입장으로 시점을 변화하여 해학과 풍자를 더하고 있다. (○, ×)
- 2. 파리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없애고자 하는 대상이다. (○, ×)
- 3. 백송골은 두꺼비가 두려워하는 대상이다. (○, ×)
- 4. 두엄 아래 자빠진 두꺼비의 모습에 대한 화자는 연민을 느끼고 있다. (○, ×)

10. 기타

(1) 春山(춘산)에 눈 녹인 바름 - 우탁(禹倬)

春山(춘산)에 눈 녹인 바름 건듯 불고 간 되 었다.
 저근 덧 비러다가 머리 우희 불니고져,
 귀 밋틱 희묵은 서리를 녹여 불가 흐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춘산(春山) : 봄 동산. '청춘'을 뜻함
- ② 건듯 : 문득. 잠깐
- ③ 간 되 : 간 곳
- ④ 저근 덧 : 잠깐. 잠시 동안
- ⑤ 머리 : 머리
- ⑥ 불니고져 : 불게 하고 싶구나
- ⑦ 밋틱 : 밑에
- ⑧ 희묵은 : 오래 된. 여러 해 묵은
- ⑨ 서리 : '백발(白髮)'을 비유
- ⑩ 春山(춘산)에 눈 녹인 바름 건듯 불고 간 되 었다. : 거의 백발이 되고 얼마 남지 않은 머리숱을, 이른 봄의 산에 녹다 남은 눈에 비유하고 있다. '건듯 불고 간 되 었다.'는 눈을 녹인 바람의 비상성(非常性)을 의미하는 한편, 지난 날 자신의 젊음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 버린, 세월의 빠른 것에 대한 허탈감을 함축하고 있다.
- ⑪ 귀 밋틱 희묵은 서리를 녹여 불가 흐노라. : '귀 밋틱 희묵은 서리'는 하얗게 센 머리의 비유이며, '녹여 불가 흐노라'라는 표현에서 늙음을 한탄하는 안타까움보다는 인생에 대한 여유와 관조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전문 풀이]

봄 산에 쌓인 눈을 녹인 바람이 잠깐 불고 어디론지 간 곳 없다.
 잠시 동안 (그 바람을)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귀 밑에 여러 해 묵은 서리[백발(白髮)]를 (다시 검은 머리가 되게) 녹여 볼까 하노라.

- 1.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 ×)
- 2. 과거를 회상하며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 ×)
- 3. 귀 밑에 해 묵은 서리는 현재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 풍경을 의미한다. (○, ×)

(2) 흰 손에 막대 잡고 - 우탁(禹倬)

흰 손에 막대 잡고 또 흰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白髮(백발) 막대로 치러터니,
 白髮(백발)이 제 먼저 알고 즈름길노 오더라.
 <청구영언>

[시어, 시구 풀이]

- ① 막대 : 막대
- ② 가시 : 가시
- ③ 치러터니 : 치려고 하였더니
- ④ 먼저 : 먼저
- ⑤ 즈름길 : 지름길. 첩경(捷徑)
- ⑥ 白髮(백발)이 제 먼저 알고 즈름길노 오더라. :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아무리 막으려 해도 찾아오는 늙음은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다. 세월의 흐름은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무상감(無常感)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전문 풀이]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러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 1. 관념을 구체적이면서 해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
- 2.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
- 3. 대화 구성을 사용하여 극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 ×)

(3) 청산리 벽계수야 - 황진이(黃眞伊)

靑山裏(청산리) 碧溪水(벽계수) | 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一到滄海(일도창해) 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山(만공산) 하니 수여 간들 엇더리.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① 벽계수(碧溪水) | 야 : 푸른 시냇물야. 당시 종실(宗室)이던 벽계수(碧溪水)란 사람을 중의적(重意的)으로 표현한 말
- ② 수이 : 쉬어. 쉽게
- ③ 일도창해(一到滄海) 하면 : 한 번 넓은 바다에 다다르면
- ④ 만공산(滿空山) : 적막한 산에 가득 참
- ⑤ 靑山裏(청산리) 碧溪水(벽계수) | 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 '청산'은 영원한 자연을, '벽계수'는 덧없는 인생을, '수이 감'은 순간적인 인생의 삶을 비유적(중의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⑥ 一到滄海(일도창해) 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 한 번 늙거나 죽으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올 수 없으니
- ⑦ 明月(명월)이 滿空山(만공산) 하니 수여 간들 엇더리. : '명월'은 지인이 자신(황진이)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문 풀이]

청산 속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야, 빨리 흘러간다고 자랑 마라.
 한 번 넓은 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청산으로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산에 가득 차 있는, 이 좋은 밤에 나와 같이 쉬어감이 어떠냐?

- 1.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생생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 ×)
- 2. 화자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며 청자에게 쉬다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 ×)
- 3. 중장에서는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다. (○, ×)

(4)梨花(이화)에 月白(월백) 하고 - 이조년(李兆年)

梨花(이화)에 月白(월백) 하고 銀漢(은한)이三更(삼경)인 제,
 一枝春心(일지춘심)을 子規(자규)야 알나마는,
 多情(다정)도 병인 양하여 줌 못 드러 ㅎ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 ① 이화(梨花) : 배나무꽃. '애상, 결백, 청초, 냉담' 등의 이미지를 지님
- ② 은한(銀漢) : 은하수
- ③ 삼경(三更) : 한밤중.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자시(子時), 병야(丙夜)라고도 함
- ④ 일지춘심(一枝春心) : 나뭇가지에 깃들여 있는 봄날의 마음
- ⑤ 자규(子規) : 소쩍새, 접동새. '불여귀, 귀촉도, 두견' 등의 별칭이 있으며 '처절, 고독, 애원'의 이미지를 지님

[전문 풀이]

하얗게 핀 배꽃에 달은 환히 비치고 은하수는 (돌아서) 자정을 알리는 때에
 배꽃 한 가지에 어린 봄날의 정서를 자규가 알고서 저리 우는 것일까
 마는
 다정다감한 나는 그것이 병인 양, 잠을 이루지 못하노라.

- 1. 특정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
- 2.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
- 3.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

(5) 靑草(청초) 우거진 골에 - 임제

靑草(청초) 옥어지 골에 죽는다 누엇는다.

紅顏(홍안)을 어디 두고 白骨(백골)만 못쳤는다

薰(잔) 줍고 勸(권)하리 업스니 그를 슬허하노라.

[핵심 정리]

종류 : 평시조

성격 : 애도가

제재 : 홍안, 백골, 무덤

주제 : 황진이의 죽음 애도(哀悼)

출전 : <교주 해동가요>

[전문 풀이]

푸른 풀 우거진 골짜기에서 자고 있느냐, 누워 있느냐.

그 곱고 아름답던 얼굴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혀 있던 말이나.

술잔을 잡아 권해 줄 사람이 이제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1. 대상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다. (○, ×)
2. 화자는 현재 애상적 정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있다. (○, ×)

정답 모음

1. 우국의 마음

(1) 가마귀 검다^{ᄃᆞ}고 - 이직

1. ×, 2. ○, 3. ○, 4. ×, 5. ×

(2) 구름이 無心(무심)ᄃᆞᆫ 말이 - 이존오(李存吾)

1. ×, 2. ○, 3. ○, 4. ×

(3) 白雪(백설)이 즈자진 골에 - 이색(李穡)

1. ×, 2. ×, 3. ○, 4. ×

(4) 간 밤의 부던 𑄃람에 - 유응부(兪應孚)

1. ×, 2. ×, 3. ○, 4. ×

(5) 자경 - 박인로

1. ○, 2. ○, 3. ○, 4. ×, 5. ×

2. 절개

(1) 눈 마즈 휘여진 티를 - 원천석(元天錫)

1. ×, 2. ○, 3. ○, 4. ○, 5. ×

(2) 수양산 바라보며 - 성삼문(成三問)

1. ○, 2. ×, 3. ○, 4. ○, 5. ×

(3) 국화야 너는 어이 - 이정보

1. ×, 2. ×, 3. ○, 4. ○

(4) 이 몸이 주겨주거 - 정몽주

1. ○, 2. ○, 3. ×, 4. ×, 5. ×

3. 연군

(1) 삼동에 뵈웃 님고 - 조식(曹植)

1. ○, 2. ×, 3. ○, 4. ×, 5. ×

(2) 간 밤의 우던 여흘 - 원호(元昊)

1. ○, 2. ×, 3. ×, 4. ○, 5. ×

(3) 방 안에 헛는 촉불 - 이개(李埜)

1. ×, 2. ○, 3. ○, 4. ×

(4) 내 ㅁ음 버혀 내여 - 정철

1. ○, 2. ×, 3. ○, 4. ×, 5. ×

(5) 올히 달은 다리 - 김구

1. ○, 2. ×, 3. ×, 4. ○

(6) 천만리 머나먼 길에 - 왕방연

1. ○, 2. ○, 3. ×, 4. ×

(7) 풍상이 섯거친 날에 - 송순

1. ○, 2. ×, 3. ×, 4. ×

4. 연정

(1) 귀쪼리 저 귀쪼리 - 지은이 미상

1. ×, 2. ○, 3. ○, 4. ○, 5. ○

(2)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 지은이 미상

1. ○, 2. ○, 3. ×, 4. ○

(3) 님이 오마 ᄃ거늘 - 작자 미상

1. ○, 2. ○, 3. ×, 4. ○, 5. ○

(4)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 - 황진이(黃眞伊)

1. ○, 2. ○, 3. ○, 4. ○, 5. ×

(5) 뭍음이 어린 후이니 - 서경덕(徐敬德)

1. ○, 2. ○, 3. ×, 4. ×

(6) 바람도 쉬여 넘는 고기 - 지은이 미상

1. ×, 2. ×, 3. ○, 4. ×

(7) 어저 내 일이야 - 황진이(黃眞伊)

1. ○, 2. ○, 3. ○, 4. ×

(8) 어이 못 오던가 - 작자 미상

1. ○, 2. ○, 3. ○, 4. ×

(9) 뭇버들 글히 짓거 - 홍랑(洪娘)

1. ○, 2. ×, 3. ○, 4. ○

(10) 개를 여러마이나 기르되 - 지은이 미상

1. ○, 2. ○, 3. ○, 4. ×

5. 자연 친화

(1) 십년을 경영하야 - 송순(宋純)

1. ○, 2. ○, 3. ×, 4. ×

(2) 두류산 양단수를 - 조식(曹植)

1. ×, 2. ×, 3. ○, 4. ×

(3)江山(강산) 조흔 景(경)을 - 김천택(金天澤)

1. ×, 2. ○, 3. ○, 4. ×

(4) 잔 들고 혼자 안재만흥(漫興) - 윤선도(尹善道)

1. ○, 2. ○, 3. ×, 4. ○

(5) 草庵(초암)이 寂寥(적료)한디 - 김수장(金壽長)

1. ×, 2. ×, 3. ○, 4. ○

(6) 추강에 밤이 드니 - 월산 대군(月山大君)

1. ×, 2. ○, 3. ×, 4. ×

(7) 댕암이 밍다 울고 - 이정선

1. ○, 2. ×, 3. ○, 4. ×

(8) 집방석 내지 마라 - 한호

1. ○, 2. ×, 3. ○, 4. ×

(9)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맹사성(孟思誠)

1. ×, 2. ○, 3. ○, 4. ○, 5. ×

6. 풍류

(1) 대초 불 불근 골에 - 황희(黃喜)

1. ○, 2. ○, 3. 금상첨화, 4. ×, 5. ×

(2) 말 업슨 청산이요 - 성훈(成渾)

1. ×, 2. ×, 3. ○, 4. ○

(3) 田園(전원)에 나쁜 興(흥)을 - 김천택(金天澤)

1. ×, 2. ○, 3. ×, 4. ×

(4) 재 너머 成勸農(성권릉) 집의 - 정철(鄭澈)

1. ×, 2. ○, 3. ×

7. 바람직한 삶의 자세

(1) 가마귀 싸호는 골에 - 정몽주의 어머니

1. ×, 2. ○, 3. ○

(2) 盤中(반중) 朱紅(조홍)감이 - 박인로(朴仁老)

1. ○, 2. ○, 3. ×, 4. ×

8. 삶의 고단함

(1) 노래 삼긴 사름 - 신희(申欽)

1. ×, 2. ×, 3. ×

(2) 식어마님 머느라기 낫바 - 지은이 미상

1. ○, 2. ×, 3. ○, 4. ×

(3)窓(창) 내고자窓(창)을 내고자 - 지은이 미상

1. ○, 2. ○, 3. ○, 4. ×

9. 풍자

(1)똥(똥)들에 동난지이 사오 - 작자 미상

1. ○, 2. ○, 3. ○, 4. ○

(2) 두터비 푼리를 물고 - 지은이 미상

1. ○, 2. ×, 3. ○, 4. ×

10. 기타

(1) 春山(춘산)에 눈 녹인 바름 - 우탁(禹倬)

1. ○, 2. ×, 3. ×

(2) 흰 손에 막디 잡고 - 우탁(禹倬)

1. ○, 2. ×, 3. ×

(3) 청산리 벽계수야 - 황진이(黃眞伊)

1. ○, 2. ○, 3. ○

(4) 梨花(이화)에 月白(월백) 흐고 - 이조년(李兆年)

1. ○, 2. ○, 3. ×

(5) 靑草(청초) 우거진 곁에 - 임제

1. ○, 2. ×